登錄라 - 2448號
【1】月刊 1988.11.9第3種郵便物(나)級認可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1991년 10월 1일 제 163 호

同窓會 指標

•參與
•協力
•榮光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大學校 同窓會報

發行겸 編輯人 崔 主 鎬
印刷人 金 相 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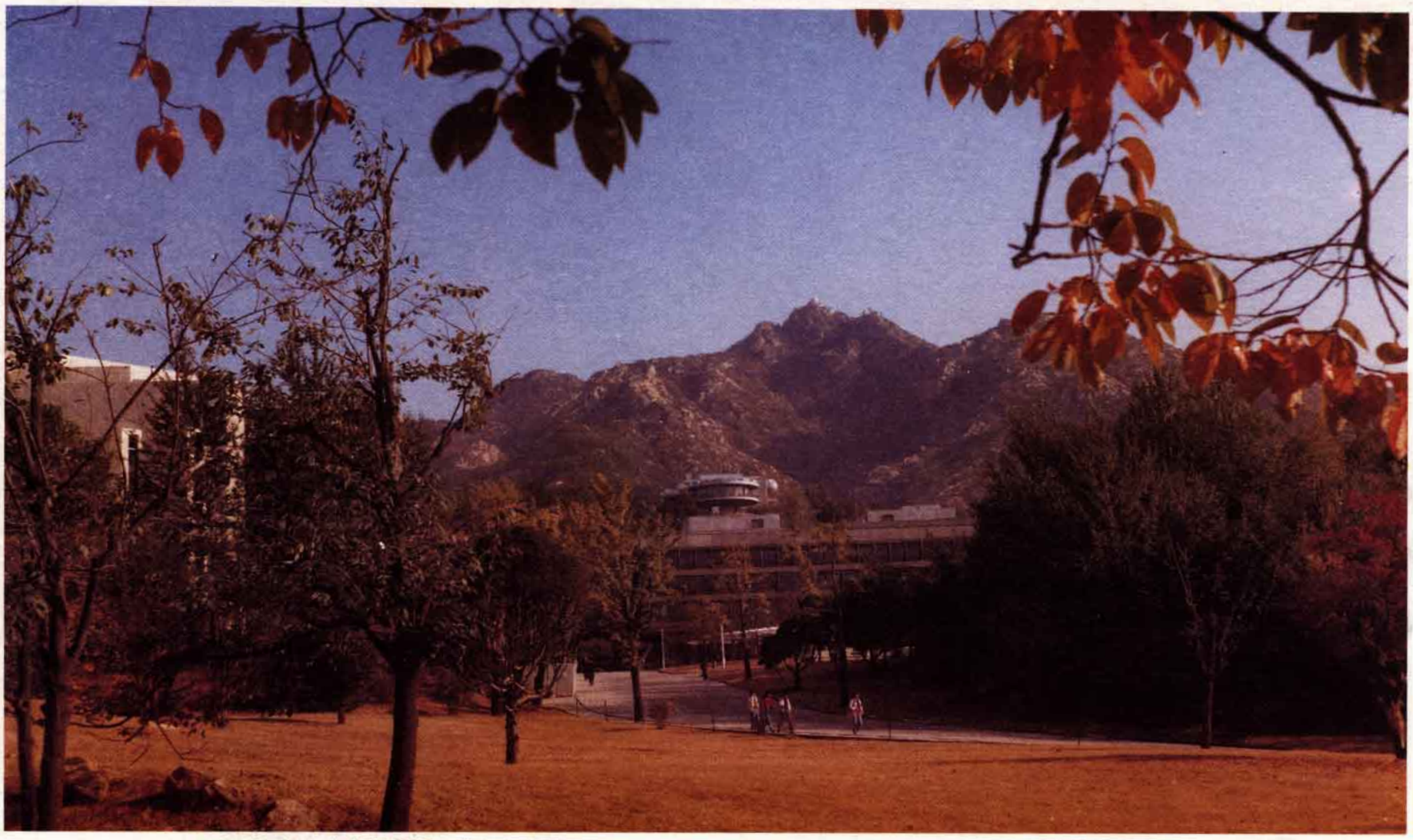
發 行 所

서울特別市江南區 瑞草洞182
電話 · 直通 (556) 2444
(462) 7552

● 銀行지로番號 : 7500875
● 對替口座서울 : 010017-31-0621565

非 賣 品

이 가을에 豊饒로운 收穫을…



同窓의 달, 만남의 季節 結實의 계절 10월은 우리 同門들의 만남의 행사가 풍성한 「同窓의 달」이다. 동창회의 가장 큰 행사인 등산대회가 이달 20일에 있고, 또 15일은 모교가 開校 45주년을 맞는 날이다. 國際的인 名門대학으로 웅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同門들이 변함없는 애정을 가지고 支援을 아끼지 말아야겠다. 사진은 奎章閣쪽에서 바라다 본 大學 本部 모습. (서울大 사진관 제공)

冠岳春秋

10월의 氣象

가을이 되면 森羅萬象이 變한다. 더위가 가시고 이른바 秋風이 天地에 많은 變化를 가져온다. 江가의 지평선에서는 하늘과 江물의 색깔의 구별이 없이 푸르다. 銀杏잎은 누렇게 물들고 철새들은 따뜻한 제고장을 찾아간다. 日氣가 淸凉해서 讀書하기에 알맞다. 그래서 옛부터 읽러 燈下可親의 계절이라고도 했다.

가을은 이같이 많은 變化를 가져온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結實을 가져온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가을이 結實의 계절임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래서 秋夕에는 온갖 飮食을 정성껏 장만해서 先祖에게 바치고 가족이 모여서 德談으로 和睦을 도모한다.

가을은 이상과 같이 여러가지 變化와 結實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큰 뜻을 안겨준다. 그러나 금년가을은 유달리 큰 뜻을 우리에게 안겨주었다고 본다.

우선 母校의 발전과 安定을 우리는 들 수 있다. 이번 새 學期를 기해서 母校總長이 새로 취임했다. 周知하다시피 이번의 總長은 敎授들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었으며 이런 일은 母校歷史上 처음있는 일이다. 總長이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다는 사실은 昨今의 우리나라 大學街의 풍토로 보아 별로 신기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重要한 일은 그 선거가 온 國民의 칭송리에 模範的으로 치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런 事例는 아마도 우리 母校에서나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自負心은 한결 커진다.

이러한 모범적 總長選出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投票權을 행사한 敎授들이 모두가 훌륭했던 탓을 우리는 먼저 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높이 評價되어야 할 것은 學生들의 슬기이다. 일부의 大學에서는 학생들이 總長選擧에 참여하겠다고 소요를 일으키고 있는 實情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後輩들은 참으로 훌륭했다고 본다. 듣건대 그들은 새 學期를 맞이하여 勉學에 열중하는 속에서도 젊음을 만끽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에 여념이 없다고 한다. 이런 모든 現象은 그동안 母校가 學園安定의 모범을 보여온 여덕이라고 보아진다. 收穫의 계절을 맞이하여 母校의 後輩들이 많은 학문적 收穫을 거두기를 바란다.

同窓會의 입장에서 볼 때 가을은 만남의 季節이다. 금년에도 예년과 같이 冠岳山 樹木園에서 만남의 廣場을 마련하느라고 任員들은 벌서부터 부산하다. 동창회는 그동안 會員간의 相互親睦과 모교의 지원을 위해 많은 努力을 해왔다. 本欄에서도 여러번 다루었지만 우리 同窓會는 그동안 海外支部新設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結果 이제는 美國, 캐나다, 프랑스 등 諸地域에 同窓會支部가 생겼다. 昨年가을의 山行때도 많은 海外同門이 일부러 母校訪問을 하여 山行에 參與해 주었지만 금년가을 산행때에도 엄청나게 많은 海外 동문이 참가할 것 같다.

만남의 廣場의 마련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은 母校에 대한 支援事業이다. 금년에는 同窓會名簿作成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된다. 名簿作成을 위해서는 去年부터 많은 공이 들었으나 지나고보니 그것이 동창회 事業資金調達에는 큰 힘이 된셈이다. 거기서 얻어진 利益金을 기금삼아 모교 後輩들을 위한 장학금을 擴充시키고 형편이 되는 대로 敎授들의 硏究支援도 생각중이라고 하니 크게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따져볼 때, 우리의 이번 가을은 알찬 結實의 季節이 되어야 한다. 同窓會와 母校는 더욱 協力을 다짐해야 할 것이며 공동의 發展을 위해 더욱 努力해야 할 것이다.

이런 意味에서 이번 10月 20日의 만남은 더욱 큰 뜻을 갖게 된다. 아무쪼록 많은 同門이 參與해서 가을의 行事를 빛내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친목登山大會 이달 20일

모교 正門앞 출발, 樹木園서 여흥

17일까지 申請해야 도시락 제공 푸짐한 景品도

동창회는 91년도 同門親睦登山大會를 오는 10월20일(日) 관악산에서 개최키로 했다.

서울大人의 화합을 도모하는 한편 동창의 날(10월15일)을 기념하는 의미로 해마다 개최되는 등산대회는 해를 거듭하면서 그 참가의 폭이 커져 지난 대회에는 3천여명이 참가, 대성황을 이룬바 있다.

등산코스는 예년과 같이 관악캠퍼스 정문을 9시 정각에 출발→관악산계곡을 거쳐→農大부속 樹木園(안양유원지 윗쪽)에 이르는 6㎞ 구간으로 약 2시간 30여분이 소요된다. 참가대상은 동문과 그 가족이 되며, 이날 주요일정은 종착지인 수목원광장에서 중식을 마치고 오후 1시부터 경품추첨과 한께 여흥을 갖게 된다.

이번 등산대회를 앞두고 동창회사무처가 코스를 답사한바에 따르면 길이 패이거나 끊어진 곳이 없어 노약자나 어린이에게도 별반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9월말 현재까지 참가신청상황을 보면 지난 대회에 이어 서클·직장지부·科·期別 동문 모임 그리고 가족단위의 참가신청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함께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각계의 동문들로부터 푸짐한 경품·협찬금이 답지하고 있는데, 협찬품은 모두 당일 참가자들에게 제공된다.

이에 따라 참가자(가족 포함) 전원에게는 도시락과 酒飮料가 전달되며, 성인에게는 이와 함께 포장육(3백g)이 별도로 제공될 예정이다.

참고로 이번 등산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동문은 도시락등의 준비관계로 늦어도 대회3일전인 17일까지는 동창회 사무처에 참가신청을 필해야하며, 준비돌은 간편한 복장에 식사시 사용할 깔판과 포장육을 조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취사도구 등이면 된다.

산우처에서는 올해도 노약자·어린이등의 귀가편의를 위해 모교측의 협조를 얻어 버스 5대를 光化門까지 운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동창회사무처(702-223)로 하면 된다.

藥大 校跡碑 제막

한국 약학의 發祥地 옛 朝鮮藥學校 자리에

◇ 교적비 제막후 기념촬영

藥大同窓會(회장 韓側承)는 지난 9월 12일 오후3시 을지로6가 舊교사자리(現 中區 구민회관)에서 校跡碑 제막식을 가졌다.

조선약학교 출신의 대선배를 비롯한 동문 1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제막식에서 韓회장은 『교적비가 건립되기까지 음으로 양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선배·은사·동문들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모쪼록 이 교적비가 한국 藥學의 발상지를 상징하는 기념물로서 길이 남아 동문들뿐 아니라 역사적인 유적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원로 선배로서 朝鮮藥學校 출신인 韓龜東동문(모교 명예교수)은 축사에서 약대의 변천사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40년간 수많은 약학인을 배출한 한국약학의 발상지를 교적비로 재확인할 수 있게되어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중구 구민회관 건물 정문옆 녹지대내에 설치된 이 교적비는 10㎝높이의 화강암 받침대위에 烏石으로 제작되었으며 후면이 70㎝, 앞면이 50㎝, 가로 80㎝ 크기이다. 경사면 좌측에 舊校舍전경이 동판으로 양각되어 부착되었고 우측에는 『1919년 이래 수많은 약학의 영재들을 배출한 유서깊은 상아탑이 자리했던 곳』임을 전하는 내용이 백색글씨로 새겨져 있다.

한국약학은 1915년 수표동부근의 창훈학교에서 1년과정인 「조선약학강습소」로 출발, 이것이 3년뒤인 1918년에 「조선약학교」로 개칭되면서 1919년 5월에 현재의 교적비 자리에 새교사를 짓고 자리를 잡았다. 이후 이 자리는 경성약학전문학교, 사립서울약학대학,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으로 이어지면서 1959년까지 40여년간 수많은 약학인을 배출했다. 약대는 그후 모교 종합계획에 따라 음대와 자리바꿈, 연건동 의대구내인 舍春苑으로 이전했고, 75년에 현재의 冠岳으로 옮겼다. 그러나 음대마저 관악으로 이전되면서 국유지였던 이 부지는 농협소유로 넘어갔고 재차 중구소유로 이전되어 현재 중구 구민회관이 들어서 있다.

약대동창회는 올해 정기총회에서 교적비 건립을 결의,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 이날 제막식을 갖게된 것이다.

한편 韓회장은 이날 교적비 건립에 기여한 金永根중구청장, 李文植중구의회의장, 金榮漢중구의회의원, 朴錫淵중구약사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모교 新·舊총장 招請宴

同窓會 회장단 주최 副總長도 참석

동창회 會長團은 지난 9월3일 오후 6시30분 모교 新·舊 총장 부총장을 리베라호텔로 초청, 축하-위로와 함께 만찬을 하면서 모교 및 동창회 발전을 위해 깊은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崔主鎬회장은 『전임 趙完圭총장께서는 학원자율화를 위해 애쓰셨을 뿐 아니라 발전기금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연구시설을 대폭 확충하는등 모교발전을 위해 크게 이바지하셨다』고 재일중의 노고를 높이 치하했다.

崔회장은 이어 『신임 金鍾云총장은 모교개교이래 최초로 교수들의 직선에 의해 뽑히신 총장』이라고 소개하고 『모교가 단순한 고급人力을 양성하는 곳이 아닌 국가사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대학이 되어 달라』고 金총장에게 당부했다.

趙전총장은 당시를 겸한 인사에서 『취임초 언론등에서 위기관리 총장이니 소방수총장이니 했고 나 자신도 7~8개월쯤 하면 오래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4년동안 大過없이 임기를 마치게 되어 큰 다행으로 생각하며 도와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金총장은 『이렇게 인사드릴 기회를 주어 고맙다』고 한후 『직선 총장이란점 명예롭기로 하지만 그만큼 부담스럽기도 하다』고 토로하고 『미력이지만 분골쇄신할 각오는 돼 있으니 동문여러분께서 적극 뒤를 밀어 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金榮國전부총장과 金商周부총장의 『훌륭한 총장님 모시고 일해서 보람있었다』, 『모교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요지의 인사가 있은 후 金在淳부회장의 제의로 모교와 동창회발전을 기원하는 건배가 있었다.

동창회 주최로 모교 총장 이·취임직후 新·舊총장 부총장이 한자리에 모이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참석자 모두가 매우 뜻깊고 흐뭇한 자리였다고 입을 모았다.

◇新·舊총장 초청 축하연에서 崔主鎬회장(中央)이 인사를 하고 있다. 좌로부터 金商周부총장, 金鍾云총장, 崔회장 건너 趙完圭전총장, 金榮國 전부총장.

李聖秀상임부회장 辭任

後任선출 會長에 임임

李聖秀상임부회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常任직을 사퇴함에 따라 그 후임 선출을 위한 會長團회의가 지난 9월25일 오후 6시30분 리베라호텔에서 열렸다.

이자리에서 崔主鎬회장은 『오랫동안 동창회 발전을 위해 애쓰신 李상임부회장이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常任을 辭任케 됐다』고 보고한후 『회칙에 따라 副會長중에서 새 常任副會長을 선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대해 참석한 부회장들은 오늘 개인사정으로 이자리에 참석치 못하신 분도 있고 또 이 문제는 당사자의 특수사정과 그 수락여부도 알 수 없는 만큼, 회장께 일임하자고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새 事務處長에 曺爽동문 임명

동창회 事務處長에 曺爽(55년 法大卒) 동문이 새로 임명되었다.

지난 9월13일자로 발령을 받은 曺사무처장은 모교 法大 졸업후 곧바로 第一銀行에 入行, 서울市內 각 支店長과 본점의 각 部長을 두루 거쳐 85년 인사부장대우 조사역을 끝으로 정년퇴임했다.

曺처장은 이후 국제기술개발 사장을 잠시 지낸후 86년 宇成그룹으로 자리를 옮겨 宇成産業 관리본부장(상무), 미쉐린코리아타이어 상무를 거쳐 현재 宇成그룹 기획조정실 상무로 재임하고 있다.

◇曺사무처장

한편 吳寅泳전사무처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지난 9월6일자로 의원사임했다.

"제2캠퍼스造成 시급"

學生選拔 학교 自律에 맡겨야

「道를 추구하는 教育」 어느때보다 절실

健全한 학생운동 國家발전 기여

大學院중심의 運營, 指導者 양성

同門이 잘 돼야 母校도 繁昌

지난 8월14일, 母校 제19대 總長에 金鍾云교수가 취임했다. 金총장은 모교 개교이래 처음으로 敎授들의 직선에 의해 선임된 民選總長이라는 점에서 全 서울大人은 물론, 각계로부터 큰 기대와 함께 환영을 받고 있다. 신임 金총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本報 편집위원인 尹宗鉉동문과의 對談을 통해 직선 총장으로서의 소감, 모교 발전을 위한 앞으로의 구상, 또 당연직 동창회 명예회장으로서 동창회에는 어떠한 기대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同門들이 궁금해 하고 있을 사항을 들어 보았다.

신임 總長 金鍾云 △57年 文理大卒 △英文學

対談

本報 편집위원 尹宗鉉 △46年 商大卒 △前 한국일보 論說顧問

尹宗鉉위원: 오래간만에 모교 캠퍼스를 찾고 보니 옛날 학창시절로 돌아간듯 감회가 새롭습니다. 더욱이 신임 총장님을 뵙고 첫인사를 드리게돼 기쁜 마음이 더해지는것 같습니다. 먼저 이자리를 빌어 전체동문들께 인사말씀부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金鍾云총장: 별로 안는것도 없고 부족한 가운데 총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보니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두려움이 앞섭니다. 아무튼 지금 동문들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이라면 본인의 힘자라는데까지 모교 발전을 위해 진력하겠다는 것입니다.

尹: 취임후 한달여만에 늦은감이 있지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마 18만 동문들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이번 총장취임에 축하의 뜻이 더욱 깊어지는 것은 첫째 서울대학교 최초의 직선총장을 맞는 반가움이고, 둘째론 선출과정에 있어 「조용한 혁신」을 벌이는 가운데 신중 민주적인 방식으로 순조롭게 대사를 치러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전임 趙총장님과의 이취임 장면이 역대 어느 총장보다 훈훈했다는 느낌입니다. 특히 전임 총장은 『신임총장 취임에 대만족』이라고 기꺼이 말씀하셨고, 신임총장은 전임총장의 공적을 높이 치하하는 것을 보면서 매우 흐뭇했습니다. 동문들의 신임총장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때보다 큰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번 직선이 갖는 의미에 대해 총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金: 동료교수들의 직선으로 총장을 뽑는 제도는 6·29 이후 국내 몇몇 대학에서 먼저 실시됐고, 서울대학교 교수 대학교로서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물론 이 制度 역시 장단점이 있겠지만 서울대학교가 세계의 대학으로 발전해 가는 시점에서 교수들이 왜 이 제도를 얼마했는가를 생각해보라 浮沈을 거듭해 왔다는 사실을 반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교수들이 이것을 뼈아프게 여겨 직선제를 택했다고 여겨집니다.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이번 직선이 시대적인 의의를 지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번 선거과정을 통해 진는 서울대학교 교수의 일원이라는데 대해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91%라는 놀라운 투표율을 보고 교수들이 이번 선거에 얼마만한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임했는가를 알게됐습니다. 한편 학의 자율권이 없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한번 첫째 목표가 자율권 확보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선진대학과가 한국 제1이라고 하지만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위상을 갖추기 위해선는 선진 대학들을 모델로 삼아 세계적으로 약진하고자 하는 이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尹: 총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서울대학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제약을 배제하는 것이 커다란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국립대학이라는 점에서 서울大 설치령등에 의해 예산편성이나 인사문제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점도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金: 좋은 지적입니다. 그간 서울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논의나 제안이 없지는 않았지만 국립대학이라는 한계상 다른 국립대와의 「균형발전」의 틀에 묶여 과감한 정부투자가 어려웠습니다. 옛날 한때 서울대학교를 특수법인화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지니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어려운 점이 없지 않겠지만 대학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서 한번쯤 생각해 볼 소지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尹: 총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대학원중심 대학으로의 위상전환을 위해서는 교수 요원의 적정한 확보와 시설의 개선도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문제가 해결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金: 그렇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제2의 도약을 이루기 위해선는 근본적으로 재정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冠岳캠퍼스로 처음 이전할 당시만해도 여유있던 시설공간이, 세월이 지나면서 과밀화 된데다 藝科大學도 이제 더이상 水原에 입지하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농업도 이제는 과거의 농업이 아니라 첨단과학과 직결돼야 유지 발전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때문에 첨단과학과의 접목을 위해서는 移轉 문제가 뒤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재일중 반드시 제2캠퍼스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재정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투자를 요청하는것과 병행해 기존 재산의 효율적인 운영도 도모할 계획입니다. 뿐만아니라 사회각계에도 지원을 요청하여 기존의 발전기금 모금활동을 획기적으로 활성화 시키고 그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조직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尹: 동문의 입장에서 모쪼록 서울대학교가 국내에 머물지 말고 세계 유수의 대학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결국 모교가 발전하면 동문들 스스로의 자긍심도 따라서 높아진다고 볼때 총장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한가지, 평소 총장님은 학생운동문제에 대해 상당히 진전적인 안목을 지니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학생운동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며 그 대응책에 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金: 개인적으로는 학생운동이 해방 이후 국가발전에 노력을 주었다는 생각도 지니고 있습니다. 國運이 변화하는 중요한 시점마다 중요한 역할을 해온 학생운동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사회는 정체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건전한 학생운동은 권장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반면 학생들 스스로가 분수와 처지를 망각하는 경우도 종종 볼수 있는데, 이런 경우 교육적인 견지에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꾸짖을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전에 있은 총장실난입사태 당시 교수들의 의연한 대처는 앞으로도 견지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모쪼록 서울대학생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위치에 서 있음을 명심하고, 이곳에서의 교육이 잘 이

金: 지금도 저는 민선총장이니 직선총장이니 하는 표현을 상당히 두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종책을 맡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실망도 더욱 커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대학운영에 대해 제가 평소에 생각해온 것이 있다면 다름아닌 「자율권의 신장」입니다. 현재 우리의 제도로는 고등교육기관의 자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자율심험대학」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대학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물론 재정적인 문제라 할수 있겠지만 저자신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학생을 선발하는 문제 또한 개선해야 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학교가 원하는 방식으로학생선발을 하지 못하고 획일화된 제도를 설정해 놓고는 이에 어긋나면 부정이라고 몰아붙이는 식으로는 곤란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최근 일부 사립대학교에서 벌어지는 전임 총장들의 수모를 보면서 저는 이러한 사태도 결국 대

尹: 이번 선거는 초반부터 세인의 관심을 집중시킨 가운데 趙淳 전문총리가 후보직을 자진 사퇴하면서 조용하고도 성공적인 총장선출을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서울대인의 올바른 선택으로 민주화시대에 서울대학교가 자율화로 가는 전기를 맞았다고 여겨집니다. 그에 따라 앞으로 총장님의 학교 운영방침에 여러 동문들이 관심을 또 한 모으고 있을것 입니다.

서울大學校 同窓會 會員 募集

신임 本部 補職교수 프로필

金商周 부총장

〈56年 工大卒·金屬工學〉

외모에서 전형적인 학자의 면모를 풍기는 金商周 신임부총장은 『총장을 보필해 대학운영을 원만히 수행하는 것』으로 취임소감을 대신했다.

『대학은 미해결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연구활동이 무엇보다도 강조되는 곳이며, 연구를 통해 얻어진 업적을 학생들에게 교육해야 하는 곳입니다』라며 대학의 학문연구 기능을 강조하는 金부총장은 『앞으로 모교의 학문적 수월성을 성취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며 연구활동을 위한 서비스에 주력할 것임을 시사했다.

56년 工大 금속과를 졸업하고는 국방부 과학연구소를 거쳐 62년부터 모교에 봉직해온 金부총장은 그간 工大교무과장·대한금속학회장·공대학장등을 역임하면서 학문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탁월한 업적을 평가받고 있다. 30년 春川생으로 「物理冶金學」「금속확산론」등의 저서가 있으며, 학술상·금속상등을 수상했다.

財政확보 시급…同門 협조 기대

교무처장 白忠鉉 교수

〈61년 法大卒 公法學〉

『연구와 교육이 연계된 종합대학에서 연구의 실천적 역할을 하는 직책을 맡게돼 커다란 책임감을 느낀다』는 신임 白忠鉉교무처장은 61년 法大를 졸업 68년부터 모교에 재직해왔으며, 그간 법률도서관장, 대학신문 사주간, 공법학과장 등을 역임하면서 학내행정의 전반을 두루 꿰뚫고 있다는 평이다.

특히 제도에 있어 대폭 자율화될 94년 대학입시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白처장은 『연구중심대학으로의 위상전환에 따른 교과과정 개편이 불가피한 만큼 인접 학문과의 연계 속에서 보다 충실한 교육을 위한 개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학생처장 金東進 교수

〈66년 師大卒 體育學〉

취임하자마자 못지 않은 상황으로 눈코뜰새 없는 시간을 보내야했던 신임 金東進학생처장은 66년 師大를 졸업하고 72년에는 교육대학원을 졸업했다.

70년부터 모교에 봉직해오면서 관악사 사감·학생부처장등을 역임, 대내외적으로 학생처장직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모교가 제2의 도약기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중임을 맡게돼 부담이 없지는 않으나 그간 학생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金처장은 종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학생처장취임 직전까지 사대 체육교육과 학과장을 맡았다.

연구처장 朴相大 교수

〈60년 文理大卒 分子生物學〉

『연구역량의 국제수준으로의 발전』이라는 신임총장의 목표달성에 참모로서의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朴相大 신임연구처장은 60년 文理大 동물학과를 졸업하고 67년부터 모교에 몸담고 있다.

바야흐로 도약의 전기를 마련해가고 있는 모교의 연구분위기를 진작시켜야 하는 책임은 부담스럽지만 앞으로『전체적으로는 물론 음지없는 균형발전을 이루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연구지원의 근간은 탁월성 중심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신을 피력하기도. 그간 실험동물 사육장장·자연대 학장보·유전공학연구소장을 역임하고, 89년 유전학회장에 선임됐다.

기획실장 裵茂基 교수

〈62년 商大卒 經濟學〉

정영일 기획실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신임 裵茂基 기획실장은 62년 商大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75년 美뉴욕시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70년부터 모교에 봉직해오면서 대외적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해 노동경제학회장·노동연구원장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교내에서는 대학신문사주간, 학생처장 직무대리를 지냈다.

「한국의 공업노동연구」「노동경제학」등의 저서가 있고, 능률협회경제경영도서문화상을 수상하기도한 裵실장은 교내외적으로 신망이 두터운편.

경남 昌原 생으로 해군장교로 전역한 경력을 지니고 있다.

관악은「滿員」

"사회적으로 崇仰받는 總長像 확립을 기대"

◇金총장과 尹위원은 모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財政的인 뒷받침도 중요하지만 예산편성이나 학생선발, 인사분제등 제약이 따르는 요소는 이제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 과감히 대학자율에 맡겨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인식에 근거하여 국가나 기업, 사회전반이 우리나라의 원동력을 배양하는 곳이 대학이라는 인식을 깊이 지니고 있을때 대학은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尹:그래 대학에서는 무 전문지식 전수에 치중하여 인간으로서의 道를 추구하는 교양교육이나 소양교육에 소홀한 감이 있지 않나 여겨지기도 합니다. 부릇 大人의 학문은 道를 구하고, 小人의 학문은 利를 구한다고 하는데, 대학이 단순히 취직의 방편이나 돈벌이의 수단을 찾는 사람들을 양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金:20세기 중반에 들어오면서 세계적으로 대학이 지향하는 체제가 멀티플(Multiple)해가면서 우리도 歐美 선진대학의 모델을 따른다 보니 무려 1백4개 학과를 보유하게 됐는데, 이는 선진대학에도 없는 현상인것 같습니다. 원하건 원치 않건 대학의 입무가 덕성을 고루 갖춘 인재양성과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지식인의 배출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쫓게돼 있다보니 그렇게 된듯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서울대 학교의 위상이라면 첫째가 교양있는 지도자의 양성이요, 둘째는 대학에서 배운 전문지식으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취임사에서도 교양교육을 강조한 것입니다. 요즘 학부에서 자유로운 고등교양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도자가 갖추어야할 덕성을 길러주고, 대학원에서는 전문지식을 전수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핏 이율배반적인 느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 둘을 동시에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근대 대학의 운명이고 보면 어쩔 도리 없이 따라야 겠지요.

尹:총장님 말씀대로 대학이라고 해서 시대적인 조류나 세계사적인 요구를 외면할 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저자신 일본의 東京大·와세다大등과 미국의 하버드·스탠포드大, 소련의 모스크바대학등 세계 유명대학들을 둘러 보면서 아직도 서울대학교가 지향해야 할 점들이 많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차제에 모교에도 民選총장을 맞게된 시점에서 대학총장의 상징성이라든지 위상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여겨집니다. 총장중의 총장이라는 서울대학교 총장으로서 지니고 계신 總長像이라면.

金:총장상이란 국가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미의 경우에는 유능한 교육행정가, 즉 모금능력이 탁월한 인물을 이상적인 총장으로 여기는 추세입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여기에다 학문적인 지성과 덕망을 겸비한 사람을 요구하는데, 한사람에게 너무 많은것을 기대하는것 같습니다. 제경우만해도 이러한 요구에 충실히 부응하는것 같지 않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분석해보면 많은 교수들이 저의 교내 행정경력을 보고 지지해 주신것 같습니다. 그러자면 나이도 많아야 했겠지요. 아마 역대 총장중 임명당시 나이로 치면 제가 최고령인듯 합니다.

尹:저희들이 알기로는 단순히 연세때문이 아니라 총장님의 학문적 인격적인 덕망이 크게 작용했다고 여겨집니다. 서울대학교의 총장이라면 국민들이 볼때 가장 신성한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정치나 관료의 세계에서 말하는 지위와는 사뭇 다르게 숭앙받을만한 영역이라고 할까요. 지난날 정무에서 간혹 정치와 연관지어 서울대학교 총장을 처우하는 것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되는데 하는 생각들을 국민들은 해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때 국민들이 기대하는 서울대학교의 총장이란 국민정성을 대표하고, 나아가 고위 총교지도자 못지 않은 정신적 信望의 존재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동문들에 대해 모교 총장으로서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은.

金:근 20만명에 육박하는 서울대학교 동문들을 생각할때 저는 가끔 이런 느낌이 듭니다. 官·政·經·學·法·예체능계에서 고루 지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동문들을 모시고 있다는 생각에 이르면 서울대학교가 곧 내한민국이라는 자긍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 반면 서울대학교만 못한 대학에서도 우리보다 동문회 활동이 활발하다는 이야기를 접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너무 유능하고 청렴해서 단결이 잘 안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모쪼록 서울대학교 동문이 잘돼야 모교도 발전할 수 있고, 그 연상선상에서 국가도 발전한다는 인식하에 모교와 더불어 발전하는 동창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尹:훌륭한 총장을 모시게 된것을 보는 동문들이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장님 말씀처럼 전 서울대인의 뜻과 성의를 합하면 세계모의 도약을 바라보는 서울대학교의 앞날도 기약되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총장님의 건투를 빕니다.

신임 單大學長 인터뷰

○… 모교 총장에 金鍾云교수가 취임하는 것을 전후하여 人文 …○
○… 大 社會大 自然大 農大 師大 藥大 音大등 7개 單大學長이 …○
○… 새로 임명되었다. 이들은 모두 소속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
○… 의 교수 직선으로 학장에 선출돼 총장의 임명절차를 거쳐 …○
○… 학장에 취임했다. 간단한 취임소감을 들어본다. 〈大學順〉 …○

人文大 蘇光熙 학장

△ 57年 文理大卒
△ 哲學

人性 치중한 敎養교육 강화

『인문대뿐 아니라 모교가 지향하고 있는 대학원중심대학으로의 개선을 위해서는 교양교육을 어떻게 이루어나가느냐가 과제입니다』라고 취임소감을 대신하는 蘇학장은 57년 文理大 철학과를 졸업하고 67년부터 모교강단에 서왔다.

『교양교육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념 보다는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외국어를 실생활에서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소양을 보다 견실하게 하는 것』이라고 소견을 피력하는 蘇학장은 『서울大人이라면 서울大人다운 교양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또 인문대內에서의 개선점으로 교원수의 확보를 꼽는다.

「기호논리학」「철학의 제문제」 등의 저서가 있으며 취미는 등산.

社會大 朴宇熙 학장

△ 58年 商大卒
△ 國際經濟學

사회의 方向舵 역할하는 大學 만들터

『동료교수들에 의해 학장으로 선출되어 기쁘고, 재임기간 동안 학교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취임소감을 밝히는 朴학장은 58년 母校 商大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67년부터 母校에 재직해 왔다. 『요즘 서울대인들은 서울대 정신이 없다』고 말하는 朴학장은 서울대인들이 어두운 사회에서 정신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사회과학대학이 그 방향타역할을 자임하겠다고. 재임기간중에는 연구공간확보와 강의과목의 다양화를 통해 국제적 수준의 대학으로 끌어 올리는데 노력하겠고 특히 지식만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德性을 기르는 교육을 하고 싶다고 말한다. 국제경제학회장과 기술경제연구회 초대회장을 역임한바 있으며 현재는 日本통상성 자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自然大 權肅一 학장

△ 58年 文理大卒
△ 物理學

研究풍토 造成에 行政 우선

『대학발전의 열망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장으로 추대해준 동료교수님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일이 걱정』이라는 權학장은 58년 文理大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美유타大에서 학위를 취득, 66년부터 모교에 봉직해왔다.

세계적인 학자를 배출하기위한 연구풍토를 조속히 마련하는 것을 행정운영방향으로 설정해 놓고 있는 權학장은 『의욕에 비해 현실이 너무 열악한 실정』이라며 연구처장재직시의 경험을 최대한 살려 연구활성화에 일조하겠다고 밝힌다. 이를 위해 시설의 선진화·첨단화를 꾀하는 한편 내년부터 Brain Pool 제도를 도입, 외국의 훌륭한 연구인력을 흡수할 계획이라고. 현재 자연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중이라는 權학장은 「고체물리학」 등의 저서가 있다.

農大 高在君 학장

△ 55年 農大卒
△ 農工學

캠퍼스 移轉문제 가장 時急

『農大로서는 어려운 문제가 많은 시점에서 중책을 맡게되어 어깨가 무겁다』고 취임소감을 말하는 高학장은 55년 母校 농공학과 졸업후 30여년간 農大를 지켜왔다. 수원농대의 시설노후화로 인해 농대의 관악캠퍼스 이전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말하는 高학장은 재임기간중 특히 이전문제에 주력해 우선 수원농대 재학생 일부만이라도 관악캠퍼스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또 농학연구동의 건립에도 노력하겠다고.

농업이 손발로 하던 노동에서 점차 첨단기술을 이용하는 농업으로 변해감에 따라 母校 농대에서도 첨단기술과 생명공학을 도입, 교육의 내용도 변화·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부인 조순남여사와의 사이에 3남2녀가 있으며 취미는 등산.

師大 黃迪倫 학장

△ 58年 師大卒
△ 英語敎育

師大 位相재정립위해 注力

58년 母校 師大 영어과를 졸업하고 67년부터 母校에 재직해 왔다. 『최근 교원선발·양성·임용을 둘러싸고 나타난 일련의 사태들은 사범대의 위상이 채 정립되지 않은 결과』라고 말하는 黃학장은 재임기간동안 사범대의 위상재정립에 주력하겠다고 말한다.

『교사양성이 일조일석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黃학장은 기능인이 아닌 덕성과 전공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춘 전문인 양성을 위해 여러 교수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연구하여 종합대학내에서의 사범대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현재 한국사회언어학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현대 언어학」(共), 「현대영어학연구」(共) 등의 저서가 있다. 부인 심원숙여사와의 사이에 1남1녀가 있다.

藥大 金洛斗 학장

△ 57年 藥大卒
△ 藥學

施設보완·臨床敎育 활성화

57년 藥大를 졸업하고 60년부터 母校에 재직해 왔다. 『현재 新藥개발이 부진한 우리나라의 여건에서 연구의 활성화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말하는 金학장은 藥學이 학문의 성격상 생명과학에 관련된 분야이므로 재임기간중 연구여건 조성과 연구활성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한다.

우선 연구여건의 조성을 위해 시설보완과 기자재도입에 주력하겠으며, 연구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학원 교육에 중점을 두고 교수의 연구에 있어서도 단독연구보다는 교수전체가 함께 연구를 이끌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한다. 또한 임상교육을 활성화해서 미래의 藥學교육에도 부응하겠다고.

金교수는 독성학회장과 한국병원약사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저서로는 「藥物學」이 있다.

音大 金容振 학장

△ 57年 音大卒
△ 作曲

專用「音樂堂」 설립에 최선

57년 音大 작곡과를 졸업하고 70년부터 모교에 재직해 왔다.

음대의 현재 상황을 놓고 볼 때 시설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재임중 음대 도서관에 악보및 레코드를 확충하는 일과 학내에 전용 음악당을 설립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힌다. 취임하자마자 「대학교수의 중고생레슨이 부조리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될때까지 레슨을 않겠다」는 音大교수들의 결의를 이끌어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한 金학장은 『음악대학의 특성을 살려 교과과정 편성에 최대한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한다.

모교 시설확충에 동문들의 조속한 협조를 당부하기도 하는 金신임 학장은 부인 연이숙여사와의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停年退任교수 열한분의 얼굴

반평생을 母校 강단에 바쳐온 열한분의 교수가 지난 8월 31일 정년퇴임했다. 學問연구와 後學육성에 전념해온 元老교수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분들의 헌신의 뜻을 기리는 의미에서 한마디의 말씀을 받아 싣는다.

浪漫主義文學 연구 큰 업적

池明烈 교수
〈人文大·獨文學〉

52년 文理大 졸업후 63년부터 母校에 재직해 온 池교수는 독문학 강의를 통해 특히 낭만주의문학 연구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중학시절 하이네詩集에 반해 독문학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는 池교수는 학문에 임할때는 다양하고 공정한 연구태도가 필요한데, 요즘은 객관적이고 다양한 연구결과를 찾아보기가 힘들어 아쉽다고.

곤궁한 시절, 외롭게 걸어 온 독문학의 길에서 교육의 정년을 맞게 되어 감회가 앞선다는 池교수는 『적당히 하려는 편법을 피하고 진지한 태도로 正道를 가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池교수는 두차례에 걸쳐 한국독어독문학회장을 역임했다.

南北赤회담 首席대표도 맡아

李榮德 교수
〈師大·教育學〉

52년 師大를 졸업하고, 59년 母校에 부임한 이후 교육과정 분야의 권위자로 한국교육학회장을 역임했고, 한국교육개발연구원의 설립을 주도, 1~3대 원장직을 맡기도 했다. 관악캠퍼스 이전 당시에는 기획위원을 맡기도 했으며 특히 현재의 교육매체제작소(IMC) 설립에는 李교수의 특별한 노력이 있었다고.

사회가 급변하는 혼란된 상황속에서 도덕적 인격을 키워내야 할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李교수는 『앞으로 남은 여생을 도덕성을 회복하는 교육의 길을 찾는데 바치고 싶다』고 말한다.

85년에는 남북적십자회담의 수석대표역을 맡기도 했으며 국민훈장모란장, 적십자봉사상을 받은 바 있다.

財政學 분야의 독보적 存在

車輧權 교수
〈社會大·國際經濟學〉

50년 商大를 졸업하고 59년 위스콘신대로 유학한 후 61년부터 母校에서 후진을 양성해 온 車교수는 국내 재정학분야의 권위자.

퇴임한다고 해서 연구활동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년에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車교수는 國初에 혼란했던 稅制정립작업에 참여했던 것이 보람이었지만 그때문에 연구활동에 전념하지 못했던 것이 아쉽다고. 반평생을 재정학과 함께 보낸 車교수는 최근 몇년간 「韓國財政40年史」라는 책을 편찬하는데 참여하여 지난달말 마지막 제7권이 나왔는데 『퇴임과 함께 마무리를 지은 작업이라 더욱 의미있게 느껴진다』라고 말한다. 車교수는 재직중 商大 도서관장, 경제연구소장 등의 보직을 맡았었다.

57년부터 34년간 모교 奉職

金魯洙 교수
〈工大·纖維工學〉

52년 工大 졸업후 57년부터 母校에 재직해 오면서 72년 섬유공학회장, 83년 母校 생산기술연구소장, 84~87년 科總부회장을 역임했다.

金교수는 현재 우리 대학의 연구여건에 대해 『과거에 비해 조금씩 개선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교수가 연구에만 몰두할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할만큼 했으니 이제는 젊은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주어야지』하는 말로 퇴임소감을 대신한 金교수는 퇴임후에는 그동안 여러 제약으로 못했던 일들을 하고 싶다고.

저서로는 「染色」「精練漂白概論」「被服材料」등이 있다.

師大학장 역임, 行政도 맡아

李元淳 교수
〈師大·歷史教育〉

49년 師大를 졸업한 후 67년 母校에 부임한 이래 국사학과 역사교육 특히 조선사학사의 연구에 기여하였다. 89년 師大학장으로 취임해 올 7월까지 師大살림살이를 도맡아 온 李교수는 75년 캠퍼스 종합화때 師大에 유일하게 남아 6년간 학과장을 지내며 전임교수가 1명뿐인 역사교육과를 지켜온 터줏대감. 역사교육연구회, 역사학회, 한국교회사 연구소등 학술단체의 책임자로 활동하기도.

『학문에 충실하고 자기학문을 사회에 정착시키는 활동, 그리고 후배양성이 敎授三樂』이라고 말하는 李교수는 퇴임후에는 한국순교자기념관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겨 학장시절동안 못했던 일을 하며 연구생활을 계속할 것이라고.

粒子物理 세계적 水準 이끌어

朴鳳烈 교수
〈自然大·物理學〉

60년 母校에 부임한 이래 31년동안 원자력공학과와 물리학과에 재직해 오면서 고에너지입자물리학의 선구자로서 우리나라 입자물리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데 공헌해 왔다.

우수한 학생들과 함께 열심히 공부할때 가장 큰 보람과 행복을 느낀다는 朴교수는 『특별히 해놓은 것도 없이 어느새 3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해온 것 이상으로 더 열심히 공부할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강해진다』고 담담하게 퇴임소감을 밝힌다.

朴교수는 자연대 부설 이론물리연구소의 초대소장과 학술원 회원을 역임했다. 『퇴임후에도 강의를 계속 할 것이며, 항상 공부하고 배우고 싶다』고 朴교수는 말한다.

土木-測地학회 발전에 貢獻

安哲浩 교수
〈工大·土木工學〉

52년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62년부터 교수로 재직해 온 安교수는 첨단과학분야인 원격탐사(Remote Sensing)에 관한 10여편의 논문등 이 방면의 학문발전에 기여하였다.

대한토목학회, 한국測地학회의 창설에 관여하여 토목및 도시계열 학회의 발전에 공헌하였으며, 국제測地學및 지구물리학연합(IUGG)의 한국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測地학회의 명예회장을 맡고 있는 安교수는 퇴임후에는 이미 설립해 놓은 「국토정보시스템 연구소」라는 개인연구소에서 후학들의 연구를 돕고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저서로는 「測量學」「一般測量學」등이 있다.

小兒腎臟學의 권위로 인정

高光昱 교수
〈醫大·醫學〉

51년 醫大 졸업후 62년 母校에 부임한 高교수는 소아신장학 연구의 권위자로 국내 소아신장학의 연구와 교육에 많은 기여를 했다. 현재 신장학회장을 맡고 있으며, 대한소아학회 이사장과 회장, 국제소아학회 소아신학전문자문위원, 아시아소아과학회 사무총장등을 역임했다.

아침 8시면 어김없이 연구실로 나와 독서와 연구에 열중해 주위로 부터 「교수의 모범」이라는 평을 들은 高교수는 귀찮게 질문도 많이 하고 날카로운 질문으로 자신을 자극하던 학생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소아과학회 학술상, 3·1문화상 학술본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저서로는 「症例중심의 小兒科學」, 「小兒科學」이 있다.

論文 90편 譯·著書 11권 펴내

韓鳳熙 교수
〈工大·金屬工學〉

52년 母校 금속공학과를 졸업한 후 57년부터 母校에 재직해 온 韓교수는 37년에 걸쳐 교육의 선두에서 후학을 양성해 왔다. 韓교수는 X-선 금속학, 금속결정학, 금속물성론 등의 연구에 많은 기여를 했으며 90편이 넘는 연구논문과 11편의 역·저서가 말해주듯 왕성한 연구열을 보여 주었다.

『과학발전이 한창 진행중이고 교육이 원숙단계에 접어들 무렵에 퇴임하게 돼 조금은 아쉽다』는 韓교수는 퇴임후의 계획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학회발전과 과학기술개발에 이바지하는데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말한다.

대한금속학회 회장, 상공부 공업진흥청 표준심의위원회 등의 자문위원을 두루 역임했다.

불모지 食品工學분야 개척

金載昺 교수
〈農大·食品工學〉

50년 농학과를 졸업한 후 57년 母校에 부임, 농화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68년 식품공학과가 신설되자 초대 학과장을 역임하며 학과의 정착에 기여했다. 60년대에 처음 강의를 맡을때만 해도 불모지나 다름없던 식품공학이 유망분야로 자리잡은 걸 보면 뿌듯하다는 金교수는 한국농화학회장, 한국식품과학회부회장, 한국영양학회 부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동안 「현대농산가공」, 「현대축산가공」등 57권이나 되는 저서를 썼으며, 항상 제자들의 일이라면 발벗고 나설만큼 자상하다는 것이 주위의 평. 식품공학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농화학회 학술상, 상공부장관 공영소유권 공로상을 수상했다.

醫大학장·병원 副院長 지내

金英均 교수
〈醫大·醫學〉

49년 醫大졸업후 65년부터 母校에 재직해 온 金교수는 비뇨기분야의 연구와 진료에 기여했다. 또 의과대학장 재직시절에는 의학발전기금 마련에 공헌하였고, 한일비뇨기과학회장, 국제비뇨기과학회 한국지부장, 미국비뇨기과 회원으로서 많은 학술활동을 했다.

서울대학교병원 제1부원장을 맡기도 했으며 올해에는 제1회 호암상 의학부문상을 수상했다.

평소 忍을 생활신조로 갖고 있으며 아침에 출근하는 차안에서도 독서를 즐길만큼 시간을 아껴 쓴다.

일에 있어서는 차밀하고 정확하여 후학에게 귀감이 될 뿐 아니라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자상하고 원만해서 후학들에게 귀감이 된다는 것이 주위의 평.

研究에 希望을 걸고 〈5〉

死因1위 不治의 원인 캔다 癌연구소

企劃 取材

지난 63년 9월에 설립된 醫大부설 癌연구소(소장 張友鉉교수)는 암연구 및 이에 관련된 질병의 원인, 본태, 진단, 치료, 예방과 역학에 관한 연구조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을 연지 30여년의 긴 기간을 거치면서 同연구소는 이제 서울醫大의 대표적인 연구소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았고 특히 올해 초 한국과학재단으로부터 「우리나라 기초과학 발전과 대학연구 활성화의 선도역할을 담당해온 업적을 인정받아 우수연구센터로 선정되고나선 더욱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고 있다.

張友鉉소장도 開所기념 심포지엄에서 밝힌바 있듯이 모교 癌연구센터는 비록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것은 서울대학교만의 것이 아니라 전국의 癌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같이 토론하고 연구해 나가는, 명실상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癌연구센터이다.

한국인 死因의 1위를 차지하는 암의 퇴치라는 공동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우수연구센터 지정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는 관계자들의 말이다. 기실 癌의 생물학적·의학적 규명및 해결은 생명과학 연구에 관계하는 모든 과학자들의 최고 관심사로서 이의 연구를 통해 얻어지는 결과들은 생물공학 전분야에 파급돼 고부가가치 창출과 아울러 유관산업 분야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서울대병원 뒷편에 위치한 癌연구소는 연건평 1천2백평의 3층 건물로 25개 연구실을 갖추고 있다. 연구센터의 편제는 15개 연구부와 5개의 특수사업부(정보교환센터·세포주은행·특수검사부·동물실·홍보사업부), 운영위원회, 연구지원부로 구성돼 있다.

연구소의 학술활동을 보면 매주 화요일 「화요 癌세미나」를 주관, 그간 꾸준한 연구발표를 통해 연구부와 5개의 특수사업부(정보교환센터·세포주은행·특수검사부·동물실·홍보사업부), 운영위원회, 연구지원부로 구성돼 있다.

연구소의 학술활동을 보면 매주 화요일 「화요 癌세미나」를 주관, 그간 꾸준한 연구발표를 통해 연구원 명, 석사과정 50명위 규모로 늘려나갈 예정에 있다.

한편 박사후 연수연구원제도를 적극 지원하여 연구교수 1인당 1명의 박사후 연수 연구원을 확보하여 장기적으로 癌연구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배출할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암연구소는 미국의 국립암연구소, 피츠버그암연구소, 록펠러연구소, 스크립스임상초대 秦炳鎬교수를 소장으로 영입, 초창기 癌연구의 정지작업을 거쳐 그간 李文鎬소장등을 거치면서 규모와 시설, 연구업적면에서 착실한 발전을 거듭해온 同연구소의 분자생물학연구부에서는 85년 인체방광암 조직에서 세포성 암유전자의 발현양상을 암의 단계별로 분석한 것을 시작으로 위암·직장암·간암·전립선암 등에도 확대실시한 바 있다.

생화학연구부에서는 간암·위장관암 진단용 시약을 개발하는 한편, 제2차 잡종세포를 만들때 세포융합 대상세포로 쓰일 수 있는 이질 잡종세포를 선별하는데 성공하기도 했는데, 이 세포는 2차 잡종세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항체를 분비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고 한다.

면역학연구부에서는 국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세포주를 개발, 현재 대장암·위암·자궁암·임파구·후두암·골육종·유방암·신장암 등 암세포주 73종과 림프아구양세포주 17종이 개발 완료된 상태다.

초미세구조연구부에선는 연구소의 주된 장비인 투과형 전자현미경과 주사형 전자현미경이 지닌 고해상도를 이용, 세포 이하 단위의 초미세구조 증명을 통하여 인체 및 실험적 암의 생물학적 성상을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두균독력연구부에서는 그간 외국에서 주로 도입하던 실험동물을 자체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기초의학 연구에 이바지 하고 있다. 이밖에 현재 진행중인 주요 연구과제로는 단세포군 항체를 이용한 대장균 내열성장독소 측정법 개발, 항암화학요법제의 검토 등이 있다.

현대의학이 당면한 최대 과제인 癌의 정복을 위해 꾸준히 연구 노력하며 국내 암연구의 최일선에 서 있다는 자부심을 잃지 않고 있는 모교 암연구소에도 아직 풀지 못한 난제들이 있다고 관계자들은 이야기 한다. 그 첫째가 국립대학이라는 여건상 전임연구원 제도가 정착되지 못해 상시적이고도 지속적인 연구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국내 기초과학연구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의 고충이겠지만 사회 전반의 인식이 미흡한데서 오는 각종 제도적·물질적 소외가 극복돼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癌퇴치라는 인류 공동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몇몇 분야의 학자들만으로는 힘든것이 사실일진대, 의학 및 생명과학 각분야의 전문가가 망라된 연구센터의 발족으로 향후 전망이 그나마 개선됐다는 사실에 안주하지 않고 국제적으로도 확고한 위치를 다지길 바라는 동료들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관계자는 다시금 부언했다.

〈金庚勳기자〉

세포주·진단용試藥 개발

生命工學 전 분야에 파급效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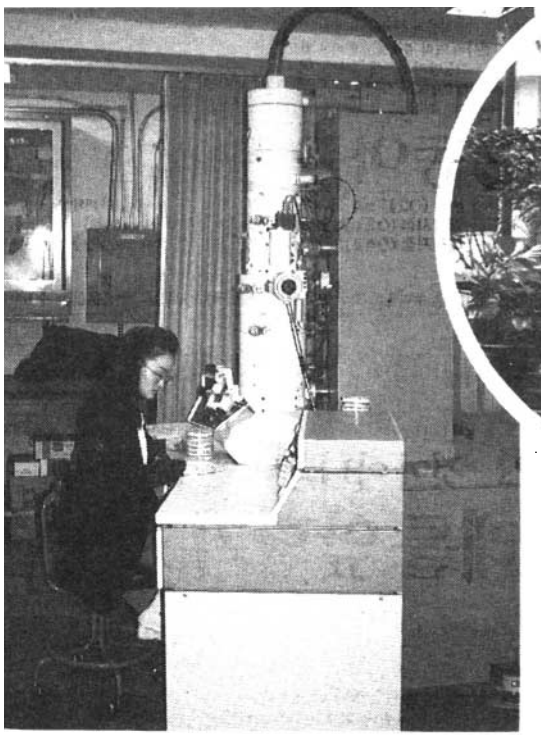
지 3차년도 연구사업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비를 지급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현재 同연구소를 중심으로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인원은 총 20명(박사 5명 석사15명)으로 이들 점차 확대해 박사과정 25

연구소, 프레드허친슨암연구소, MD·앤더슨암센터, 다나파버암연구소 외에도 일본의 국립암센터, 유럽 분자생물학연구소 독일암연구센터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상호 정보교류와 아울러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균성질환의 진단, 치료 및 발병기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렙토스트라 및 리켓치아에 대한 연구를 진행,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한편 腫瘍세포학 제1연구부에서는 암의 연구에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암세



◇연구소의 주된 장비인 전자현미경

◇서울대병원 뒤편에 위치한 癌연구소 전경

국내 癌연구 선도…專任연구원制 도입 시급

南載熙국회 倫理委員長

同門을 찾아서

制憲이래 처음 구성, 國民 기대 커

"自淨통해「政治不信 해소」최선"

지난 9월11일 열린 國會본회의에서 初代윤리위원장으로 선출된 南載熙(58년 法大卒·民自黨국회의원) 동문은 「국회 倫理委는 制憲이래 처음으로 구성되는 것입니다。의원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은 이미 만들어져 있지만, 그것을 여하히 해석하고 적용하느냐 하는 관행을 축적하는 것이 향후 과제」라고 소감을 피력하면서 「윤리심사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엄정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國會倫理委는 그간 국회商工委 되물외유사건·水西비리 등으로 역대 국회사상 가장 많은 수의 의원이 구속되는 기록을 남기는등 오욕의 그늘에 가려 功은 뒷전으로 밀려난듯한 현시점에서 정치권의 自淨노력을 통해 정치불신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로서 발족됐다。

이번 特委의 주된 역할은 「의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회피의무조항」과 강연·원고등 제반 활동으로 사회통념을 넘는 사례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사례에 관한 조항」준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말하는 南동문은 「특히 의원들은 총론격인 윤리강령과 각론격인 실천규범에 의해 일반인보다 더욱 엄격한 윤리를 요구받게될 것」이라고 설명한다。이와 관련해 그는 「이러한 시도 이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정치인들이 심기일전하여 도덕성제고에 노력하는 한편, 깨끗한 정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뒤따라야 할것」이라고 부연했다。

58년 法大를 졸업하고 막바로 韓國日報에 입사, 79년 10代국회에 입문하기까지 20여년간을 언론계에 재직하면서 조선일보 편집국장 寬勳클럽 총무, 서울신문 주필등 요직을 두루 거친 南동문은 「정연한 논리와 구수한 화술」로 이미 정평이 나있었다。

「동료의원들을 罰하는 직책을 맡을때 대해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큰 비리사건이 터지면 除名까지 할 수 있지요。그러나 바람직한 것은 깨끗한 정치가 하루빨리 이루어져 倫理委에서 할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윤리심사에서는 위반사실을 「통고」만 하고 통고가 2회면 정계사유가 됩니다。통고만 하면 節에 대한 원망도 필요없는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대답한다。

윤리위원회가 국회차원의 自淨장치로서 정치권에 대한 外風을 막는 역할로서의 기능도 담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물음에 「사직당국에서도 중죄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윤리위원회에 우선 맡겨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미국처럼 공개윤리청문회를 여느냐의 여부도 관행을 어떻게 세워나가느냐에 달렸다는 南동문은 舊민정당 정책위 의장을 두차례나 역임한 이론가。10代때 서울 江西에서 공화당 공천으로 당선된 이후 내리 4選의 관록을 자랑하는 重鎭의원으로서, 또 黨內 논객으로서 각종 세미나의 단골손님이기도 하다。골프를 않는 대신 斗酒不辭형이며, 독서열은 정가에서 정평이 나있다。

法大동기인 卞文圭(58년 法大卒·서울女大교수) 여사와의 사이에 4女를 두고 있는데, 長女 화국양도 84년 人文大 국사학과를 졸업한 서울大人이다。〈金〉

掲示板

結婚

同窓會館 冠岳홀

*김무열군(85년 工大卒)·김동순양=10월1일1시。
*이민종군(89년 法大卒)·정경숙양=10월3일1시30분。
*김욱환군(90년 農大卒)·박견원양=10월3일3시。
*임동훈군(大學院재학중)·노명희양(大學院재학중)=10월4일1시。
*우종인군(88년 農大卒)·김진이양=10월5일11시30분。
*이정웅군(87년人文大卒)·이미란양=10월5일1시。
*김현석군(88년 農大卒)·조민희양=10월5일2시30분。
*최영구군(89년 工大卒)·정미숙양=10월6일12시30분。
*이희수군(87년人文大卒)·이혜원양=10월6일2시。
*정경민군(88년 工大卒)·김보경양=10월6일3시30분。
*추희연군(89년人文大卒)·김인숙양=10월8일2시30분。
*문정엽군(89년經營大卒)·임경희양=10월12일11시30분。
*명한석군(90년社會大卒)·오경혜양(90년 農大卒)=10월12일1시。
*이병인군(87년 工大卒)·김미경양=10월12일2시30분。
*배석주군(91년社會大卒)·김선영양=10월13일11시30분。
*류 훈군(89년 工大卒)·김희영양=10월13일1시。
*안형주군(85년 工大卒)·김미경양=10월13일2시30분。
*정경희군(85년 工大卒)·이선미양=10월13일4시。
*김도연군(88년人文大卒)·남윤정양=10월15일2시。
*문형근군(81년 法大卒)·임은숙양=10월19일12시。
*서수동군(89년經營大卒)·윤선아양=10월19일1시30분。
*이홍대군(87년經營大卒)·박은경양=10월19일3시。
*허창희군(86년自然大卒)·송현정양=10월20일11시30분。
*이기엽군(90년 農大卒)·엄수정양=10월20일1시。
*정 진군(88년 工大卒)·엄영미양=10월20일2시30분。
*정춘식군(89년社會大卒)·박미란양=10월20일4시
*남문희군(85년社會大卒)·정끝별양=10월26일11시。
*정영균군(87년 工大卒)·이태경양=10월26일12시30분。
*조윤동군(86년 師大卒)·김민자양=10월26일2시。
*김곤욱군(89년 工大卒)·김재수양=10월26일3시30분。
*노동선군(85년 工大卒)·모미숙양=10월27일11시30분。
*최병갑군(90년 農大卒)·서명희양=10월27일1시。
*배석용군(85년 農大卒)·최기진양=10월27일2시30분。
*문홍길군(87년 農大卒)·김은애양=10월27일4시。
*문선유군(84년社會大卒)·정혜숙양=10월29일1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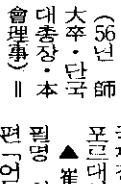
訃音

▲張師勛(68년 大學院卒·한국국악학회 명예회장·母校명예교수)=9월25일 오전7시 강남성모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향년 76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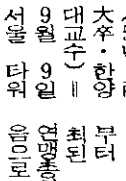
▲趙世衡(54년 文理大·國會議員·本會理事)=9월11일 국회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文胎甲(54년 商大卒·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本會理事)

▲邰然權(54년 文理大卒·동아일보사이사)=9월12일 부터 15일까지 스위스에서 열린 IISS(국제전략문제연구소) 제34차 총회에 참석, 내년 9월9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열릴 제35차 총회의 조직위원장으로서 서울총회 준비를 협의하고 귀국。



▲張忠植(56년 師大卒·단국대총장·本會理事)=백범 김구선생 기념사업회장으로서 9월28일 백범회관 강당에서 「북한과 단일팀구성」을 주제로 제69회 백범 강좌개최。



▲李根熙(56년 商大卒·한양대교수)=9월 9일 서울 타워호텔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수여하는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상。수상논문은 「가치공학에 있어서 Fuzzy Set을 이용한 기능평가법」。

▲李淳新(58년 商大卒·해창양복점사장·本會理事)=8월16일부터 2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24차 세계주문복업자연맹총회에서 농양인으로는 처음으로 부회장에 피선됨。

▲金鎭福(58년 醫大卒·母校교수·本會理事)=8월25일부터 부교육청 학무교장에서 교육국장으로 승진。

▲黃東奎(61년 文理大卒·母校대학신문주간·本報편집위원)=시집「골목대행」으로 문화과 지성사에서 제정한 「이산문학상」시부문 수상자로 선정, 9월19일 프레스센터에서 수상함。

▲金在澈(61년 法大卒)=9월12일 대구고법원장에서 사법연수원장으로 전보。

▲黃仁吉(62년 文理大卒·前아남정밀연구소장)=9월 2일 아남산업부설 연구소장에 임

▲李鍾祿(47년 文理大卒·원광대명예교수)‖9월 6일 군산 영빈회관에서 古稀기념 논문집을 증정받고 사학재단 연합회가 수여하는 봉황장을 받음。

▲徐柱成(47년 商大卒)‖최근 경탁양산전문대학 초대학장에 취임。

▲金正泰(49년 文理大卒·중국문제연구소장)‖9월12일부터 5일간 중국 成都에서 열린 중국현대문학의 태두 빠진(巴金)국제학술토론회에 초청연사로 참가, 「빠진문학의 사회적 배경」을 주제로 연구논문 발표。

▲李兌榮(49년 法大卒·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本會理事)‖9월6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해마다 사회봉사공로가 많은 여성에게 수여하는 용신봉사상을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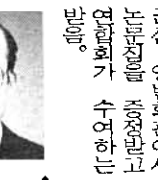
▲朴鶴一(51년 師大卒·美洲동창회뉴욕지부간사)‖8월2일 美共和黨員으로서 미합중국대통령勳位(Presidential Order of Merit)를 수여받음。

▲朴權相(52년 文理大卒·언론인)‖최근 仁村 金性洙선생의 유지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仁村賞 수상자로 선정됨。

▲李寬(53년 工大卒·21세기위원회위원장·本會理事)‖9월4일 同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여성고용과 사회발전」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朴晟容(54년 文理大·금호그룹회장·本會理事)‖8월29일 롯데호텔 사파이어룸에서 열린 태평양금연연합회 총회 개막식에서 세계보건기구(WHO)로 부터 금연메달을 수여받음。

▲張英俊(54년 商大卒·관동대교수)‖9월 14일 강릉관광호텔에서 저서 「貿易契約論」(學文社刊)의 출판기념회를 가짐。



▲金善弘(55년·工大卒·기아그룹회장·本會副會長)‖최근 仁村賞수상자로 선정됨。시상식은 10월11일 오후 5시30분 롯데호텔 사파이어룸에서 거행됨。

▲金芝雲(55년 文理大卒·한국언론학회장·성균관대교수)‖8월31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실에서 「중합유선방송법」의 입법예정과 관련하여 제4차 「쟁점과 토론」 포럼을 개최。

▲金錫營(55년 法大卒·태양종합상사대표·本會理事)‖최근 上海·北京·瀋陽·長春등 중국일대의 일제하 한국독립운동 활동지역과 백두산을 돌아보고 귀국。

▲宋庸植(55년 法大卒·한국프레스센터이사장·本會理事)‖9월6일 프레스센터 20층 멕버스클럽에서 「남북한 UN동시 가입 이후의 북한의 변화와 소련사태의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 개최。

▲李康秀(55년 商大卒·本會理事)‖9월10일 종권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서 한국신용평가㈜ 사장으로 선임됨。

▲孫在植(56년 法大卒·前동일원창장)

▲安商元(56년 師大卒·서울시敎總회장·건국대교수)‖9월13·14 양일간 한국교총강당에서 「서울시 현장교육연구대회 우수논문발표회」를 가짐。한편 安동문은 최근 서울시 교육위원에 당선되기도 했다。

▲李鍾衍(56년 商大卒·조흥은행장·本會理事)‖8월 31일 새집서 새생활운동의 일환으로 북한산에서 국토대청결운동을 벌임。

▲崔泳一(56년 獸醫大卒·기독교방송상무·本會理事)‖9월 16일 샘동회 부회장으로서 동화구연을 통해 어린이운동에 이바지한 공로로 제7회 눈솔상을 수상。

▲丁胄燮(57년 師大卒·서울백석중학교장)‖지난 7월25일부터 3일간 대구고등학교에서 생활영어교육활성화를 위한 전국 워크숍을 개최하고, 한국중등영어교육연구회 제3대 회장에 피선됨。

▲高永復(56년 大學院卒·母校교수)‖10월 5일 母校 문화관 소극장에서 「한국사회와 농촌」을 주제로 심포지엄 개최예정。

動靜

이 欄은 同門들의 동정을 全회원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사진과 함께 記事를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용 있으시길 바랍니다. 電話로 통보해 주셔도 됩니다. 단, 本報의 편집방침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年3回 이상 게재치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電話 : (702) 2233~5
FAX : (703) 0755

▲金恩典(57년 師大卒·母校교수)‖9월 14일 母校 同校에서 교직원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峨山도서관 준공식을 가짐。

▲趙吉濬(60년 師大卒·本會理事)‖9월1일자로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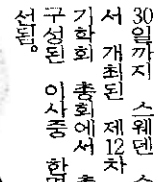
▲李相周(60년 師大卒·울산대총장·本會理事)‖9월 4일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91년도 아시아태평양 부동산연맹(APREC) 총회에서 부동산 시장과 전망에 관한 주제로 발표。

▲孔大植(60년 文理大卒·명지대교수·本會理事)‖최근 미 일합섬사장으로 전임。

▲趙尙鎭(60년 工大卒)‖9월2일자로 진해화학사장에서 한 투자금융사장으로 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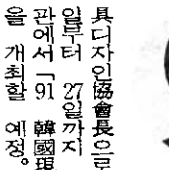
▲韓東羽(59년 法大卒)‖8월27일 동양증권사장에서 동양 부 본부대사에 임명됨。

▲李升煥(59년 法大卒)‖9월20일자로 특허청차장에서 외무 명됨。



▲張潤宇(62년 美大卒·성신여대교수·本會理事)‖韓國裝身具디자인協會長으로서 12월1일부터 27일까지 위커힐미술관에서 「91 韓國現代裝身具展」을 개최할 예정。

▲金文煥(68년 文理大·母校교수)‖9월 7일 오후 5시 기부터 숭실대학교 노사관계대학원과 중소기업대학원에 출강, 한국경제전반및 노사관계와 중소기업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다。



▲金聖一(62년 法大卒)‖9월12일 제주지법원장에서 법원행정처차장으로 전보。

▲朴萬浩(62년 法大卒)‖8월30일 법원행정처차장에서 대법관에 임명됨。

▲安秉直(62년 商大卒·母校경제연구소장)‖9월27일 同연구소 창립30주년을 기념하여 교수회관에서 「한국의 경제발전-평가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

▲安龍得(63년 法大卒)‖9월12일 부산지법원장에서 대구고법원장으로 전보。

▲鄭佑鎭(64년 工大卒)‖최근 왕컴퓨터코리아㈜ 전무에서 부사장으로 승진。

▲金明子(66년 文理大卒·숙명여대교수)‖최근 한국과학재단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연구보고서를 단행본 「동서양의 과학전통과 환경운동」으로 펴냄(동아출판사刊)。또한 윤동문은 5월부터 KBS1TV의 「과학 2001」에서 진행을 맡고 있다。

▲李憲宰(66년 法大卒·本會理事)‖9월10일 한국신용평가㈜ 사장에서 증권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됨。

▲文熹甲(66년 行政大學院卒·國會議員·本會理事)‖금번 학

▲金文煥(68년 文理大·母校교수)‖9월 7일 오후 5시 문예진흥원 강당에서 연극의 해를 맞아 저술한 「연극평론의 기초」와 「인식과 초월, 오늘의 우리창작극」의 출판기념회를 가짐。또 일본 국제교류기금의 초청으로 1년간 일본의 문화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9일 渡日。

▲崔鍾庫(70년 法大卒·母校교수)‖최근 독일 피팅겐대학에서 열린 「세계법철학및 사회철학」제15차대회에 참석하고 돌아옴。

▲李仁濟(72년 法大卒·國會議員·本會理事)‖9월12일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安養지역발전연구소」를 개설。

▲白純實(74년 美大卒·화가)‖9월9일부터 17일까지 강남구 청담동 이목화랑에서 개인전을 가짐。

▲玄在喜(76년 音大卒·세종대교수)‖9월 30일 호암아트홀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가짐。

▲朴世勳(78년 醫大卒·박세훈 피부과원장)‖10월4일부터 7일까지 독일 뷘헨에서 개최되는 제12차 세계피부외과학회에 참석차 10월2일 출국하여 9일 귀국예정。

年會費 내주신 분

(이사 일반 : 6월28일~8월5일까지)

人名밑 원내 숫자는 卒業年度.

理事

◇工科大學
▲金慶植(46) 김경식특허법률사무소장
▲金興憲(59) 홍익회관리이사
▲金精石(64) ㈜유공상무이사
▲金兌燮(57) 신아조선사장
▲金炯珠(50) 삼안건설기술사장
▲辛相熙(64) 대한석탄공사부장
▲李昌甲(50) 前충남대총장
▲曺鴻根(57) ㈜쌍방울이사
▲智東範(55) 한국제지사장
▲崔元甲(60) 최신물산회장

◇農科大學
▲高文泳(52) 국제종합건설사장
▲權大旭(73) 한보주택사장
▲金載正(53) 한국종묘협회장
▲李澤遠(56) 충북대총장
▲林承龍(61) 배화여고교장
▲韓甲俊(56) 임업연구원이용부장

◇文理科大學
▲金圭相(57) 국토운수사장
▲閔英基(61) 경희대교수
▲朴東秀(53) 경북대교무처장
▲徐元錫(54) 롯데상사사장
▲吳東馨(63) 쌍용경제연구소장
▲柳寅範(55) 대성화원장
▲殷茂一(65) 전북대교수
▲李元雨(61) 경희대교수
▲李正煥(50) 정보자원개발사장
▲張世熹(50) 서울대교수

◇美術大學
▲宋榮邦(60) 동국대교수
▲李烈模(61) 성균관대교수

◇法科大學
▲權宗根(58) 변호사
▲金聖洙(65) 변호사
▲金宗鎬(59) 국회의원
▲金昌甲(61) 교통부차관
▲朴東烈(69) 새한종합금융부장
▲朴秉禧(56) 금성투자금융사장
▲朴禹東(57) 대법관
▲朴忠淳(56) 국회의원
▲李圭孝(57) 변호사
▲李相河(63) 국회의원
▲張溟河(59) 외무부본부대사
▲崔錫旻(60) 한아산업사장
▲曺圭香(64) 문교부차관

◇師範大學
▲高永慈(64)
▲具昌謨(55) 청담고교장
▲金成坤(53) 전주여고교장
▲朴英子(50) 부산문현여중교장
▲尹英秀(59) 신흥중학교장
▲李彰國(64) 중앙대교수
▲李漢星(57) 공항예식장사장
▲任弘宜(57) 제주교육대교수
▲洪承機(49) 고려대교수

◇商科大學
▲崔明奎(49) 대전투자금융사장
▲權鍾善(58) 야쿠르트유업사장
▲金釩洙(61) 호남정유상무
▲金榮浩(59) 삼호주택부사장
▲李文相(55) 대양상호신용금고고문
▲李昌雄(65) 화남상사사장
▲曺甲周(63) 신흥식품회장
▲崔景南(56) 한성투자금융전무

◇獸醫科大學
▲權東日(84) 한국화이자농축부
▲羅基植(58) 동신산업사장
▲朴鍾榮(65) 중앙케미칼부사장

◇藥學大學
▲金基豊(55) 화생당약국
▲金政洙(62) 대동약품전무
▲宋鍾善(54) 일양약품사장
▲宋豊五(59) 신진약품회장

◇醫科大學
▲姜淳龍(51) 민생의원장
▲金明柱(62) 한강성형외과원장
▲朴文甲(53) 박문강의원
▲尹秉鶴(51) 홍국생명부속의원
▲洪彰義(47) 현대중앙병원

◇看護學科
▲李永子(63) 서울대병원간호부장

◇齒科大學
▲尹興烈(65) 상아치과의원장
▲李烽基(56) 동남치과의원장
▲李允相(65) 이윤상치과의원장
▲全黨植(65) 전훈식치과의원장

◇經營大學院
▲金奭泰(69) 한인니자원개발

會費납부에 뜨거운 精誠을…

동문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年會費가 순조롭게 入金되고 있습니다. 뜨거운 정성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회비는 1년에 한번만 납부하시면 되며, 보내주신 회비는 同窓會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사업과 母校支援에 유익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아직 未納 동문께서는 이달 말까지 내주셔서 동창회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會費 내역—

- 一般會員 …… 1만원
- 理事 …… 5만원
- 常任理事 …… 10~20만원
- 監事 …… 30만원
- 副會長 …… 50만원
- 會長 …… 100만원

一般會員

◇人文大學
▲姜性華(85)
▲權五乭(82)
▲金正隆(89)
▲金炳植(89)
▲金惠淑(88)
▲朴炳鎭(89)
▲朴炳龍(83)
▲朴鍾泰(83)
▲吳泰植(80)
▲尹의선(89)
▲尹鴻植(84)
▲李성영(88)
▲權炳奎(82)

◇社會大學
▲金인곤(76)
▲권경술(67)
▲김세윤(86)
▲김태현(81)
▲박규완(78)
▲박미경(89)
▲박종덕(78)
▲박하영(77)
▲유택형(88)
▲윤희철(86)
▲임재주(69)
▲조재범(88)
▲최윤선(87)
▲조 영(75)
▲김성은(89)
▲황덕순(76)
▲변혜주(87)

◇經營大學
▲권경섭(83)
▲서원석(77)
▲유제화(85)
▲이광원(86)
▲이재형(85)
▲전두정(86)
▲조윤규(85)
▲표회선(80)
▲김경수(82)
▲신상은(86)
▲유태훈(77)
▲이대찬(86)
▲이혜성(77)
▲정훈교(81)
▲추연우(81)

◇工科大學
▲김봉호(49)
▲강헌식(73)
▲고유문(65)
▲구덕건(63)
▲구창남(64)
▲김 철(77)
▲김경수(78)
▲김구택(63)
▲김기중(57)
▲김두진(35)
▲김민규(51)
▲김병태(61)
▲김상부(84)
▲김석진(52)
▲김선진(89)
▲김동우(72)
▲김영선(77)
▲김영휘(53)
▲김원식(72)
▲김윤환(65)
▲김종상(60)
▲김종덕(65)
▲김창규(62)
▲김태용(86)
▲김호수(67)
▲김홍국(72)
▲나상원(75)
▲나상빈(56)
▲문경섭(86)
▲민병욱(54)
▲박동진(71)
▲박명욱(71)
▲박선호(78)
▲박영준(58)
▲박유성(51)
▲배광호(72)
▲백제인(78)
▲서영웅(65)
▲서정선(81)
▲성관제(81)
▲손동요(65)
▲송영부(70)
▲신형기(74)
▲신성원(80)
▲오서균(67)
▲오구진(69)
▲안재휴(56)
▲심현택(85)
▲안기륜(57)
▲신병규(57)
▲신철순(63)
▲송양호(58)
▲성하명(83)
▲석현수(74)
▲서용권(74)
▲변형직(51)
▲백삼태(66)
▲박찬빈(66)
▲박정국(81)
▲박용돌(54)
▲박성희(79)
▲박상수(63)
▲박만석(61)
▲박남석(58)
▲민길자(57)
▲남상훈(72)
▲나정서(75)
▲나덕주(71)
▲김환철(84)
▲김현석(85)
▲김태홍(87)
▲김통락(78)
▲김동면(56)
▲김동먼(56)
▲김용익(54)
▲김영훈(63)
▲김영경(56)
▲김성태(77)
▲김선장(69)
▲김석민(76)
▲김상부(83)
▲김부규(79)
▲김병기(69)
▲김명린(85)
▲김기협(71)
▲김그배(68)
▲김광세(73)
▲김경락(64)
▲권영필(75)
▲구유회(62)
▲곽태헌(73)
▲강신원(76)
▲강헌택(81)
▲김정호(76)
▲김성은(89)
▲변혜주(87)
▲황덕순(76)
▲오수은(79)
▲우영보(59)
▲유신덕(65)
▲유용선(61)
▲유지호(87)
▲윤원영(82)
▲윤관식(59)
▲이기세(85)
▲이도추(86)
▲이삼규(87)
▲이성환(70)
▲이승관(71)
▲이용우(68)
▲이재윤(73)
▲이정상(57)
▲이정우(65)
▲이중홍(59)
▲이창희(77)
▲이창배(58)
▲이한수(53)
▲이홍식(67)
▲이황수(75)
▲임상전(52)
▲임익건(74)
▲임한욱(66)
▲잔세일(63)
▲전분헌(83)
▲전광필(74)
▲정연호(80)
▲정유진(77)
▲정지현(61)
▲조규담(57)
▲조남제(87)
▲조순교(78)
▲조정답(67)
▲조형제(55)
▲주홍수(76)
▲최 웅(48)
▲최은순(62)
▲추헌출(61)
▲하정용(70)
▲한만조(80)
▲한도국(83)
▲한재은(53)
▲한원호(75)
▲한원국(63)
▲홍순삼(65)
▲황선태(85)
▲황홍구(62)
▲이규희(17)
▲조세환(49)
▲강명길(67)
▲고충환(76)
▲권혁진(65)
▲김광홍(69)
▲김기선(81)
▲김문태(66)
▲김부경(59)
▲김영기(59)
▲김재수(63)
▲김봉대(79)
▲김태호(76)
▲김봉철(39)
▲한화섭(49)
▲강성모(70)
▲권오철(75)
▲김광식(81)
▲김근영(69)
▲김부국(58)
▲김봉섭(67)
▲김호중(73)
▲김인영(65)
▲김정기(65)
▲김진규(55)
▲김태호(76)
▲나영빈(85)
▲황 현(76)
▲황영규(75)
▲홍승식(79)
▲한희서(65)
▲한필동(80)
▲한완균(85)
▲한병익(81)
▲한건우(59)
▲하재명(78)
▲최태진(63)
▲최양하(73)
▲차진수(56)
▲조효상(70)
▲조학성(72)
▲조은석(82)
▲조병오(47)
▲조규섭(54)
▲조관식(82)
▲정재길(60)
▲정연휘(55)
▲정연철(57)
▲정기달(62)
▲장정요(59)
▲장보영(70)
▲임채봉(80)
▲임용규(56)
▲이황수(75)
▲이호창(76)
▲이한배(62)
▲이창섭(58)
▲이진태(75)
▲이순석(69)
▲이정오(71)
▲이재훈(70)
▲이재건(63)
▲이완주(68)
▲이수관(81)
▲이성기(58)
▲이상경(72)
▲이대호(66)
▲이 민(64)
▲윤재명(70)
▲윤진화(65)
▲유웅석(72)
▲유완상(71)
▲우욱현(74)
▲왕동근(67)
▲김성은(89)
▲황덕순(76)
▲변혜주(87)
▲조 영(75)
▲김성은(89)
▲황덕순(76)
▲변혜주(87)

會費를 내주신 분에게는

校歌·同窓會歌 테이프를 보내드립니다

▲노재홍 ⑬ ▲박노홍 ⑥ ▲박승희 ⑤ ▲서정락 ⑩ ▲손기언 ⑥ ▲신문주 ⑧ ▲오문진 ⑩ ▲우보명 ⑥ ▲유재구 ⑤ ▲유철호 ⑦ ▲이강남 ⑦ ▲이광현 ⑧ ▲이동선 ⑦ ▲이명구 ⑦ ▲이수희 ⑨ ▲이영렬 ⑨ ▲이완준 ⑥ ▲이인형 ⑥ ▲이종운 ⑤ ▲이진옥 ⑦ ▲이철우 ⑥ ▲이태환 ⑥ ▲이해종 ⑤ ▲이철주 ⑦ ▲임관환 ⑤ ▲임노현 ⑥ ▲장정동 ⑤ ▲정옥수 ⑥ ▲조웅제 ⑦ ▲조재훈 ⑦ ▲진관현 ⑤ ▲최영국 ⑤ ▲최주건 ⑤ ▲하인환 ⑤ ▲한광우 ⑦ ▲허재철 ⑤ ▲홍성원 ⑤

▲문성옥 ⑥ ▲박선홍 ⑦ ▲서승제 ⑤ ▲성수일 ⑦ ▲송맹수 ⑧ ▲양성렬 ⑥ ▲우기원 ⑥ ▲유인철 ⑥ ▲유재영 ⑥ ▲유현근 ⑥ ▲이경섭 ⑥ ▲이기조 ⑥ ▲이무영 ⑦ ▲이시철 ⑤ ▲이영열 ⑥ ▲이유택 ⑧ ▲이장희 ⑤ ▲이진성 ⑤ ▲이창구 ⑥ ▲이태범 ⑦ ▲이해수 ⑥ ▲이혈구 ⑧ ▲이흥균 ⑥ ▲임기표 ⑦ ▲임재환 ⑥ ▲정진욱 ⑥ ▲정만재 ⑤ ▲최원개 ⑤ ▲최양도 ⑦ ▲조희렬 ⑥ ▲조장호 ⑥ ▲팽기석 ⑧ ▲하종일 ⑦ ▲한인규 ⑤ ▲현동섭 ⑥ ▲홍윤범 ⑥

◇文理科大學

▲강기진 ⑦ ▲강호양 ⑦ ▲구양모 ⑦ ▲노건일 ⑥ ▲박광춘 ⑥ ▲박기정 ⑥ ▲박주기 ⑥ ▲박용조 ⑥ ▲박우동 ⑥ ▲박시정 ⑥ ▲박범서 ⑥ ▲박봉환 ⑤ ▲박영옥 ⑤ ▲박윤배 ⑦ ▲박일권 ⑤ ▲박태규 ⑤ ▲배신환 ⑥ ▲백완기 ⑤ ▲백동규 ⑥ ▲배기성 ⑥

▲강창섭 ③ ▲곽회영 ⑥ ▲권근술 ⑥ ▲권왕순 ⑦ ▲권영필 ⑥ ▲권혁방 ⑦ ▲김명자 ⑥ ▲김문성 ⑥ ▲김상욱 ⑥ ▲김윤식 ⑥ ▲김인루 ⑤ ▲김동대 ⑤ ▲김동식 ⑥ ▲김한출 ⑥ ▲김형렬 ⑥ ▲김관글 ⑦ ▲김종수 ⑤ ▲김정택 ⑥ ▲김인수 ⑥ ▲김영락 ⑥ ▲김분창 ⑥ ▲김명한 ⑥ ▲김명기 ⑥ ▲권왕순 ⑦ ▲권근술 ⑥ ▲노상인 ⑥ ▲박권상 ⑤ ▲박노철 ⑤ ▲박봉환 ⑤ ▲박영옥 ⑤ ▲박태규 ⑤ ▲배신환 ⑥ ▲백동규 ⑥

▲변해룡 ⑥ ▲부정애 ⑦ ▲서기림 ⑥ ▲손봉호 ⑥ ▲신남진 ⑤ ▲신춘우 ⑦ ▲신형강 ⑦ ▲양만영 ⑥ ▲오주국 ⑦ ▲오덕근 ⑦ ▲안창진 ⑦ ▲신충균 ⑤ ▲신대철 ⑦ ▲송병섭 ⑥ ▲서재만 ⑥ ▲사상완 ⑥ ▲부유남 ⑥ ▲윤 철 ⑦ ▲유재천 ⑥ ▲유한서 ⑥ ▲윤용달 ⑥ ▲이광순 ⑥ ▲이기원 ⑤ ▲이돈형 ⑥ ▲이동익 ⑥ ▲이상택 ⑥ ▲이세구 ⑥ ▲이유상 ⑦ ▲이용태 ⑤ ▲이정림 ⑤ ▲이창수 ⑤ ▲이해창 ⑥ ▲이효원 ⑦ ▲장문호 ⑥ ▲전동성 ⑦ ▲정경철 ⑤ ▲정춘영 ⑤ ▲조계찬 ⑤

▲조희웅 ⑥ ▲최상규 ⑥ ▲최임순 ⑤ ▲최진호 ⑦ ▲한영호 ⑥ ▲홍종철 ⑥ ▲황성일 ⑥ ▲황홍환 ⑥ ▲최성렬 ⑥ ▲최재원 ⑥ ▲한말숙 ⑤ ▲홍성석 ⑥ ▲황봉구 ⑦ ▲황의종 ⑤ ▲이정주 ⑤ ▲조모형 ⑥ ▲최두춘 ⑤

◇美術大學

▲김세일 ⑥ ▲김태호 ⑦ ▲김재훈 ⑥ ▲김희경 ⑥ ▲박남희 ⑦ ▲박혜령 ⑦ ▲백운호 ⑥ ▲양행기 ⑥ ▲서경덕 ⑦ ▲엄규자 ⑥ ▲우계숙 ⑦ ▲이길용 ⑥ ▲이성화 ⑦ ▲이환범 ⑦ ▲조수도 ⑦ ▲채윤경 ⑥ ▲추명희 ⑦ ▲강남미 ⑦ ▲김재호 ⑥ ▲남용우 ⑤ ▲박미화 ⑦ ▲백상용 ⑥ ▲부수언 ⑥ ▲신석필 ⑥ ▲엄광섭 ⑥ ▲오영희 ⑦ ▲유지성 ⑥ ▲이관숙 ⑦ ▲이용국 ⑥ ▲정탁영 ⑥ ▲조용숙 ⑥ ▲최미경 ⑧ ▲허봉충 ⑥

▲형진식 ⑦ ▲홍동식 ⑤

◇法科大學

▲진의종 ④ ▲강돈길 ⑤ ▲김근대 ⑦ ▲김대환 ⑧ ▲김국환 ⑧ ▲김영기 ⑤ ▲김용욱 ⑥ ▲김용석 ⑥ ▲김동상 ⑥ ▲김부호 ⑤ ▲김태진 ⑦ ▲김회룡 ⑥ ▲박병구 ⑦ ▲박석귀 ⑦ ▲박인환 ⑤ ▲박장우 ⑦ ▲박제봉 ⑥ ▲박준수 ⑥ ▲박춘근 ⑦ ▲박홍식 ⑥ ▲배병우 ⑤ ▲부구욱 ⑦ ▲석진강 ⑥ ▲설부현 ⑥ ▲송영식 ⑥ ▲송춘채 ⑥ ▲강명식 ⑥ ▲구자만 ⑤ ▲김대환 ⑥ ▲김봉수 ⑦ ▲김성진 ⑥ ▲김영욱 ⑥ ▲김용상 ⑥ ▲김재락 ⑧ ▲김봉철 ⑥ ▲김진국 ⑥ ▲김홍한 ⑦ ▲민정기 ⑦ ▲김석주 ⑤ ▲박영식 ⑤ ▲박장우 ⑦ ▲박제봉 ⑥ ▲박준수 ⑥ ▲박태흡 ⑥ ▲반기로 ⑦ ▲배재욱 ⑥ ▲석광현 ⑦ ▲성맹문 ⑥ ▲송기영 ⑦ ▲송인기 ⑤ ▲신달순 ⑤ ▲홍기인 ⑤

▲홍유식 ⑦ ▲황선익 ⑦ ▲황이연 ⑥ ▲황천이 ⑥ ▲홍순범 ⑤ ▲황영옥 ⑥ ▲황병하 ⑥ ▲황재성 ⑥

◇師範大學

▲신재관 ⑦ ▲이옥경 ⑨ ▲이분복 ⑦ ▲강영삼 ⑥ ▲강정식 ⑥ ▲강영식 ⑥ ▲구헌회 ⑤ ▲곽철규 ⑦ ▲권홍순 ⑤ ▲김경수 ⑤ ▲김남규 ⑤ ▲김명순 ⑤ ▲김병춘 ⑦ ▲김상헌 ⑦ ▲김국경 ⑦ ▲김일병 ⑥ ▲김홍경 ⑤ ▲김정완 ⑤ ▲김인옥 ⑥ ▲김선만 ⑥ ▲김남래 ⑥ ▲김태갑 ⑤ ▲김한식 ⑤ ▲김남국 ⑥ ▲김남수 ⑥ ▲김철용 ⑥ ▲김경훈 ⑥ ▲김진홍 ⑥ ▲권경종 ⑦ ▲구사용 ⑤ ▲곽도현 ⑥ ▲강의식 ⑤ ▲강병찬 ⑥ ▲이순 ⑤ ▲안진희 ④ ▲박인식 ⑤ ▲박양수 ⑥ ▲박상래 ⑤ ▲박인선 ⑦ ▲박승덕 ⑤ ▲박영배 ⑤ ▲박재수 ⑥ ▲홍순범 ⑤ ▲황영옥 ⑥ ▲황병하 ⑥ ▲황재성 ⑥

▲전영호 ⑥ ▲정재헌 ⑥ ▲조규홍 ⑥ ▲조순옥 ⑥ ▲조재승 ⑤ ▲최은규 ⑧ ▲한인수 ⑧ ▲한진희 ⑥ ▲홍종용 ⑤ ▲황금연 ⑤ ▲황선용 ⑥ ▲정용익 ⑦ ▲조갑민 ⑥ ▲조마뉴 ⑤ ▲조은지 ⑥ ▲최길순 ⑤ ▲하봉옥 ⑥ ▲한정식 ⑤ ▲홍사훈 ⑥ ▲황규종 ⑥ ▲황우기 ⑥

◇商科大學

▲강완기 ⑦ ▲고성규 ⑦ ▲권영식 ⑦ ▲김길환 ⑥ ▲김문진 ⑦ ▲김성룡 ⑦ ▲김종만 ⑦ ▲김기덕 ⑥ ▲공형식 ⑥ ▲김홍배 ⑤ ▲김찬조 ⑤ ▲김재진 ⑧ ▲김봉환 ⑦ ▲김원태 ⑥ ▲김현배 ⑤ ▲김효석 ⑦ ▲김남익 ⑤ ▲문태곤 ⑦ ▲박병현 ⑤ ▲박순태 ⑥ ▲박승덕 ⑤ ▲배상천 ⑥ ▲박정희 ⑥ ▲박영태 ⑥ ▲박석태 ⑥ ▲박동순 ⑥ ▲노병태 ⑥ ▲김동갑 ⑤ ▲김원배 ⑤ ▲김석룡 ⑦ ▲김태곤 ⑦ ▲박동순 ⑥

▲정재두 ⑤ ▲조관호 ⑥ ▲진영욱 ⑦ ▲최종대 ⑤ ▲한영창 ⑥ ▲한정복 ⑦ ▲한신협 ⑥ ▲채수강 ⑥ ▲조형규 ⑤ ▲성종식 ⑥ ▲조갑민 ⑤ ▲조마뉴 ⑤ ▲조은지 ⑥ ▲최길순 ⑤ ▲하봉옥 ⑥ ▲한정식 ⑤ ▲홍사훈 ⑥ ▲황규종 ⑥ ▲홍동진 ⑥ ▲홍우표 ⑥ ▲황병조 ⑤ ▲황우기 ⑥

◇獸醫科大學

▲권주기 ⑥ ▲김동강 ⑤ ▲서익수 ⑤ ▲엄기선 ⑦ ▲이성근 ⑥ ▲이인세 ⑥ ▲이형우 ⑤ ▲임연식 ⑥ ▲조병하 ⑥ ▲조희태 ⑤ ▲권호윤 ⑥ ▲김석호 ⑥ ▲성기문 ⑤ ▲유한상 ⑥ ▲이승우 ⑤ ▲이종경 ⑦ ▲임복택 ⑤ ▲정진기 ⑤ ▲조종후 ⑥ ▲황명수 ⑦

▲박홍재 ④ ▲고주석 ⑥ ▲김병각 ⑤ ▲김상훈 ⑦ ▲김일협 ④ ▲노영재 ⑤ ▲박한규 ⑦ ▲백인복 ⑤ ▲심응기 ⑤ ▲윤도중 ⑥ ▲이경우 ⑦ ▲이재섭 ⑥ ▲이태규 ⑤ ▲임경택 ⑤ ▲조병하 ⑥ ▲조원익 ⑦ ▲최우석 ⑤ ▲지삼구 ⑤ ▲조병현 ⑤ ▲임순택 ⑤ ▲이희선 ⑤ ▲이정우 ⑤ ▲이은복 ⑤ ▲임연택 ⑤ ▲김동주 ⑥ ▲김병삼 ⑥ ▲김돈식 ⑥ ▲임순태 ④

◇藥學大學

▲김명희 ⑥ ▲김영준 ⑦ ▲노주희 ⑥ ▲박효숙 ⑤ ▲이명진 ⑤ ▲이정섭 ⑥ ▲전미영 ⑦ ▲현병화 ⑤ ▲김현정 ⑦ ▲김경희 ⑦ ▲김희태 ⑤ ▲설용애 ⑦ ▲문용일 ⑦ ▲김형규 ⑥ ▲김행춘 ⑤ ▲강욱지 ⑥ ▲작석용 ⑤ ▲문독선 ⑦ ▲배일환 ⑦ ▲손명진 ⑦ ▲양연섭 ⑦ ▲고순자 ⑤ ▲이기정 ⑥ ▲이상녕 ⑦ ▲장은영 ⑦ ▲정구경 ⑤ ▲조기선 ⑥ ▲추홍주 ⑥ ▲한강의 ⑥ ▲허 백 ⑤ ▲황 완 ⑤ ▲임현두 ⑥ ▲이해빈 ⑤ ▲한진호 ⑥ ▲최종원 ⑥ ▲지삼구 ⑤ ▲조원익 ⑦ ▲조병하 ⑥ ▲임경택 ⑤ ▲이재섭 ⑥ ▲이경우 ⑦ ▲임순태 ④

◇音樂大學

▲양영기 ⑤ ▲송혜경 ⑦ ▲설용애 ⑦ ▲문용일 ⑦ ▲김희태 ⑤ ▲김현정 ⑦ ▲김경희 ⑦ ▲현병화 ⑤ ▲전미영 ⑦ ▲조명원 ⑦ ▲이정섭 ⑥ ▲이명진 ⑤ ▲박효숙 ⑤ ▲노주희 ⑥ ▲김명희 ⑥ ▲김영준 ⑦ ▲고순자 ⑤ ▲배일환 ⑦ ▲손명진 ⑦ ▲양연섭 ⑦ ▲김형규 ⑥ ▲김행춘 ⑤ ▲강욱지 ⑥ ▲작석용 ⑤ ▲문독선 ⑦ ▲김경희 ⑦ ▲김현정 ⑦ ▲김희태 ⑤ ▲설용애 ⑦ ▲문용일 ⑦ ▲양영기 ⑤ ▲송혜경 ⑦

▲오양구 ⑥ ▲유원일 ⑦ ▲이사랑 ⑦ ▲임경원 ⑥ ▲잠형원 ⑦ ▲정은숙 ⑦ ▲조병희 ⑥ ▲홍기현 ⑦ ▲홍우미자 ⑥ ▲홍영옥 ⑥ ▲최보금 ⑥ ▲조가현 ⑥ ▲전혜옥 ⑦ ▲임성숙 ⑦ ▲이영이 ⑦ ▲윤향훈 ⑦ ▲오유애 ⑥

◇醫科大學

▲이동훈 ④ ▲양만규 ④ ▲홍종관 ④ ▲한상인 ⑤ ▲고경환 ⑦ ▲권기택 ④ ▲김광애 ⑦ ▲김동균 ⑤ ▲김명석 ⑥ ▲김영권 ⑦ ▲김보원 ⑤ ▲김영수 ⑥ ▲김종환 ⑤ ▲박길선 ⑥ ▲박상규 ⑥ ▲박숙현 ⑤ ▲서상완 ⑤ ▲서홍석 ⑦ ▲성유운 ⑤ ▲윤원식 ⑤ ▲강홍인 ⑤ ▲정정순 ⑤ ▲강정우 ⑦ ▲김 웅 ⑥ ▲김근우 ⑥ ▲김병태 ⑦ ▲김상구 ⑥ ▲김연석 ⑦ ▲김성신 ⑤ ▲김인준 ⑦ ▲노정일 ⑦ ▲서종국 ⑥ ▲박용우 ⑥ ▲박용삼 ⑥ ▲백북원 ⑥ ▲성삼현 ⑦ ▲김재홍 ⑥ ▲김부상 ⑥ ▲김병국 ⑦ ▲김석현 ⑥ ▲김성식 ⑥ ▲김근우 ⑥ ▲오성희 ⑦ ▲안영모 ⑤ ▲오경백 ⑦ ▲오향순 ⑥ ▲유세화 ⑦ ▲유현덕 ⑧ ▲이삼복 ⑤ ▲이언복 ⑤ ▲이재곤 ⑤ ▲이춘화 ⑧ ▲이철민 ⑦ ▲이형진 ⑤ ▲장화식 ⑦ ▲정문상 ⑦ ▲조성옥 ⑤ ▲진우정 ⑦ ▲지삼근 ⑦ ▲최영인 ⑥ ▲최유백 ⑦ ▲최원식 ⑦ ▲최인호 ⑦ ▲한기준 ⑤ ▲현상옥 ⑦ ▲이 영 ⑥ ▲이수동 ⑦ ▲이영길 ⑤ ▲이성신 ⑦ ▲이춘화 ⑧ ▲장창준 ⑤ ▲정근상 ⑦ ▲조명원 ⑦ ▲지삼근 ⑦ ▲최영인 ⑥ ▲최유백 ⑦ ▲최원식 ⑦ ▲유정희 ⑦ ▲유성기 ⑥ ▲오성희 ⑦ ▲안영모 ⑤ ▲서종국 ⑥ ▲박용우 ⑥ ▲노정일 ⑦ ▲김인준 ⑦ ▲김상구 ⑥ ▲김병태 ⑦ ▲김근우 ⑥ ▲김 웅 ⑥ ▲강정우 ⑦ ▲정정순 ⑤ ▲강홍인 ⑤ ▲윤원식 ⑤ ▲김규태 ⑤ ▲이상림 ⑤ ▲김용준 ⑤ ▲강용섭 ⑦ ▲강형재 ⑤ ▲김부상 ⑥ ▲김병국 ⑦ ▲김석현 ⑥ ▲김성신 ⑤ ▲김재홍 ⑥ ▲성삼현 ⑦ ▲백북원 ⑥ ▲박용삼 ⑥ ▲김인준 ⑦ ▲노정일 ⑦ ▲서종국 ⑥ ▲박용우 ⑥ ▲안영모 ⑤ ▲오성희 ⑦ ▲유성기 ⑥ ▲오향순 ⑥ ▲유세화 ⑦ ▲유현덕 ⑧ ▲이삼복 ⑤ ▲이언복 ⑤ ▲이재곤 ⑤ ▲이춘화 ⑧ ▲이철민 ⑦ ▲이형진 ⑤ ▲장화식 ⑦ ▲정문상 ⑦ ▲조성옥 ⑤ ▲진우정 ⑦ ▲지삼근 ⑦ ▲최영인 ⑥ ▲최유백 ⑦ ▲최원식 ⑦ ▲최인호 ⑦ ▲한기준 ⑤ ▲현상옥 ⑦

※紙面관계상 音大이후는 次號에 게재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停年3戒의 점검

名譽敎授 칼럼

車柱環 〈前 人文大 교수〉

서울대학에서 정년으로 퇴임한지도 벌써 5년반 이상의 세월이 지났다。퇴임전해에는 퇴임후의 일이 다소간 불안하게 느껴져서 선배들의 지혜를 청해 보기도 하였다。그러던 중 한 선배가 웃음을 띠우면서 정년 후에 지켜야할 3가지 戒律이 있다고 하며 일러주는 것이다。그 첫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다져가며 말했다。『강연의 퇴나 원고 청탁이 오면 절대로 거절하면 안된다!』그런데 그 설명이 더 걸작이다。일단 정년으로 퇴임하고 직장에서 나와 버리면 한물 간 사람으로 치고 웬만해서 기억에 떠올려 주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그러니 그런 처지에서 강연 의뢰나 원고 청탁을 받는다는 자체가 이미 경하할만한 일이다。만약에 그런의 뢰나 청탁을, 무슨 이유에서이건간에, 한두차례 거절하고 나면 세상에서 완전히 잊혀 버려지고 말게 된다。준비하는데 시간이 들고 좀 고생이 된다 하더라도 기어이 나가서 강연을 하고 원고도 청탁 내용대로 써 보내야 한다。

어느 점 서글픈 느낌을 자아내는 설명이기는 하지만 선배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의 일단이기도 하다。

지난 5년반 동안의 세월을 돌이켜 보니 상에서는 아직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어 강연 의뢰도 심심치 않게 밖았고, 반드시 계율을 지키기 위한 것은 아니었지만, 의뢰해온 강연을 거절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다만 나는 화술이 뛰어난 직업적인 연사는 아니기 때문에 교양주의 강연에 연사로 초빙되는 일은, 전무하지는 않았으나, 극히 드물었다。그리고 결혼주례를 맡으면 강연의 일종인 주례사를 하게 되는데, 정년이 되고 나서는 결혼 주례를 부탁해 오는 일이 아주 적어졌다。물론 결혼주례를 맡게 되면 주례사는 골을여서 간략하게 해주기는 하였다。내가 그동안에 의뢰받은 강연류로는 국내에서 거행되는 학술회의에서의 基調演說을 들게 된다。학술회의의 기조연설은 미리 강연 원고를 써 내야 하므로 약간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새로운 연구를 하는 것보다는 힘이 덜드는 편이다。

강연과는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국내외의 세미나에서의 논문 발표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그동안 나는 매년 한두 차례씩 국제학술회의에 나가 주로 중국어로 쓴 논문을 발표했는데, 台北에 가장 많이 갔고, 東京, 南京, 北京등지도 한차례씩 다녀왔다。작년 11월에는 먼저 대북에 들려서, 대만대학에서 주관한 中國文學飜譯國際學術硏討會에 참석하여 陶淵明詩의 韓譯과 관련된 문제를 정리하여 발표하였다。이어 香港을 경유하여 남경에 가서 남경대학이 주관하는 唐代文學國際學術討論會에 참석하여 司空圖의 二十四詩品에 대한 견해를 조정하여 발표하였다。조직위원회 측에서 토론회를 마무리하는 강연을 의뢰해 와 그것을 수락하여 약 30분동안 중국어로 강연하였다。다음에는 中國敦煌吐魯番學會 측에서 북경대학에다 준비한 敦煌學座談會에 출석하여 그곳 학회의 인사들과 여러가지 문제를 가지고 의견을 교환하였다。내가 韓國敦煌學會의 會長이었기 때문에 좌담회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원고 청탁은 정년이 전 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비교적 꾸준히 들어온 편이다。신문 잡지 등등 정기간행물에 게재할 수필 원고의 청탁이 그래도 제법 들어 오는데, 대개 원고 마감 날짜가 촉박한 경우가 많다。그리고 수필은 그나름으로 창작에 속하기 때문에 想이 떠오르지 않으면 써지지가 않는다。그러나 나는 젊었을 때 문필수련을 해 두었던 덕분으로 그동안 청탁 받은 수필 원고는 못써 보낸 일이 없다。그리고 몇가지 원칙에는 옛세이풍의 連載物을 집필하기도 하였고, 2년 이상을 연재한 사례까지 있다。그리고 한두가지 사전의 함록 집필에 참여키도 하였다。

이러한 글쓰는 작업과 직접 관련되는 컴퓨터의 사용법을 익힌 것이 정년 후에 내가 새로 개척한 일에 속한다。국문 중문 영문을 두루 쓸 수 있고, 작성한 원고가 깨끗하고, 수정과 보관이 편리해서 좋다。컴퓨터의 조작 방법은 젊은 사람들 한테서 많이 배웠다。

이 밖에도 지난 5년여동안 전후로 몇가지 연구 계획의 일부를 맡아서 부피있는 논문을 몇편 작성하여 발표하기도 하였다。정년 전에서 동대출판부와 계약하고 내내 원고를 못 넘겨준 《中國詩論》을 결실을 하고 몇달 동안의 시간을 내어 집중적으로 작업을 진행해서 그 원고를 완결시켜 출판부에 넘겨주어 마침내 책으로 낸 책은 이 《中國詩論》 한가지 뿐이다。보완하면 단행본으로 낼 수 있는 글이 모여 있기는 하지만 보완작업을 위한 시간을 낼 수 없어서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는 형편이다。

이상은 停年三戒 중의 첫째 계율을 점검한데 불과하다。둘째 계율은 젊어 보인 일로는 백제 유적 견학에 따라갔다가 실록해서 원 팔에 골절상을 입은 적이 있다。여름철에 무슨 큰 부상이나 할것이 팔에 대단스레 기부스를 하고 다닌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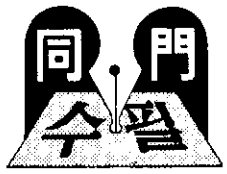
셋째 계율은 둘째 것과 비슷한 의미를 지닌 것이다。『천하 없어도 절대로 지팡이를 짚고 다니지 말라!』。지팡이가 아니면 운신을 못하니 다됐다고 여긴다는 것이다。그런데 나는 한때 오른쪽 무릎에 심한 신경통이 와서 한동안 지팡이를 짚고 다녔다。다행히 치료 끝에 무릎 신경통이 깨끗이 없어져서 지팡이가 필요없게 되기는 하였다。

講演會, 原稿청탁 거절말라
病난 기색 남에게 보이지 말라
지팡이를 절대 짚고 다니지 말라

배지(徽章)文化

鄭 鎭 弘 〈60年 文理大 卒 모교 人文大 교수〉

돌이켜 보건대 나의 사회적 성숙은 배지를 다는 일로부터 비롯하였고 그 일로 점철되었다고 할 수 있다。유치원에 들어갔을 때선생님으로부터 받은 배지는 나에게 그 나름의 나의 성숙을 스스로 확인하는 경이스러운 징표였고 내 친구들에게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자랑스러운 징표기도 하였다。국민학교와 중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에 이르기까지 배지는 항상 그렇게 나와 더불어 있었다。배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설명해주는 것이었으며 동시에 나를 스스로 규제하는 내 규범이기도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때로는 긍지로, 때로는 속박으로, 내 삶을 빚는 그런 것이었다。



그러나 학교를 떠나 넓은 사회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배지는 그처럼 절실한 필요이거나 의미있는 상징이 아니게 되었다。내가 있었던 직장이 그런 것을 마련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있다손치더라도 그것을 패용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된다。소속을 드러낸다든가, 더 나아가 자기가 속한 곳이 다른 사람이 속한 곳보다 더 우월하다든가, 아니면 더 열등하다는 것을 드러낼지도 모르는 배지 따위를 달고 다니는 일은 유치한 짓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른바 일류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자랑스레 배지를 패용하는 모습이 별로 유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결코 배지를 떼는 일이 없는 국회의원들을, 볼 때면 아예 경멸스럽기조차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배지를 단 대학생을 찾아보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까닭을 몰은즉, 어떤 학생의 대답이, 특권의식을 불식하고 끼리집단의 배타성을 없애기 위한거라고 한다。지면이 있는 국회의원을 만났는데 배지를 달고 있지 않기에 왜 그 비싼 금배지를 달지 않았느냐고 힐문을 했더니 이것을 달면 반드시 사람들과의 벽이 생기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떼버렸다는 것이었다。이런 사태는 참으로 감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바야흐로 배지를 통해 상징되던 묘한 권위주의가 우리 사회에서 추방되고 있음이 실증적으로 드러나는 변화이기 때문이다。이대로 이 귀한 변화가 성숙해 간다면 우리 사회는 인간을 수식하는 형식이 아니라 인간자체가 존중되는 진정한 삶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배지 문화의 소멸이 그런 까닭만으로 설명되는 것일까? 배지의 패용을 거절하는 은폐된 동기는 오히려 익명성을 즐기면서 책임을 적당히 회피하려는 게으르고 사악한 잔꾀부림은 아니었을까? 그러한 진정한 동기를 짐짓 평등성의 추구니 배타성의 극복이니 하는 영롱한 언어로 꾸며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인간은 문화적 제어를 모두 거절할 만큼 자유로운 존재는 아니다。오히려 그의 창조성은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문화적 상징을 마련할 수 있다는데서 드러난다。그리고 배지는 인간이 "나는 나다"라고 하는 자신의 고백을 가능케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있는 삶을 살도록 규제하고 격려하는 상징이었다。그렇다면 우리는 배지문화의 소멸을, 특히 대학에서의 그러한 현상을 한번쯤 심각하게 되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배지의 패용을 부활시키자는 것은 아니다。자신을 확인하고 책임지는 문화적 상징의 부재를 대학문화 속에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다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것이다。

민간요법의 虛와 實

——金南柱 (68年 保健大學院卒 · 잠실韓醫院長

근래에 갑자기 TV나 라디오에서 어느병에는 무슨나무가 좋고 무슨병에는 어느풀이 좋다고 눈과 귀가 따가울정도로 아침 저녁 정보가 쏟아져 나온다. 물론 개중에는 필자가 생각하고 아는 바로 일리가 있는 것도 있지마는 애매모호한것이 대부분이다.

어느한분야나 다 그렇듯이 韓方醫學도 수천년전에는 理論보다는 經驗을 중요시하였으나 그 經驗이라야 체계가 있는것도 아니고 통계가 있는것도 아니며 어느면에서는 지금 생각하면 유치하기가 짝이 없는 것들이다.

어느나라고 民間療法은 있다. 다만 이 민간요법을 얼마나 信 하느냐가 문제이다.

時代에 따라서, 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적당한 비판과 합리적인 연구가 따라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가 못하다.

그러다 보니 어느것은 직접 病을 惡化시키는 민간요법도 있고 어느것은 치료되기를 기다리다가 병을 깊게 만드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北韓에서 발간된 東醫學辭典을 보면 민간요법은 사람들이 의사의 손을 거치지않고 자기병을 고치기 위하여 몸 가까이에 있는 植物性 動物性 廣物性 물질들을 써본 실천적 경험에 기초하여 생겨났고 오랜세월과 더불어 전해 내려오면서 병치료에 널리 쓰여왔으며 그 과정에 내용들이 보다 풍부화되었다고 쓰여있다.

그런데 여기서 오랜세월이 문제다. 오랜세월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과정에서 어느때는 極大化되었다가 어느때는 極小化되었다가 여러가지의 말과 형태로 변화되면서 민간요법 자체가 와전되고 왜곡되어서 때에 따라서는 병을 고치기 보다는 惡化시키는 경우가 많았으며 병이 가벼워지기 보다는 깊어지기가 일쑤다.

이렇게 엄연한 사실을 가볍게 여기고 TV나 라디오에서 개인의 치료를 시퍼렇게 드는것이지 죽은피가 빠져나오는 것은 아니다.

민간요법의 발달과정을 문헌이나 습관으로 미루어 볼때 처음에는 인간의 본능에서 시작되었으리라고 생각된다.

마치 꿩이 다리가 부러지면 풀잎으로 붕대같듯이 동여매는 것처럼 말이다.

다음에는 지식계급에 의하여 약간의 위생적인 방법으로, 더러는 위험성을 덜어주는 방법으로 지도하고 계몽하다가 불행하게도 전쟁이 나거나 홍수가 일어나거나 전염병이 유행되면 일시에 많은 藥材를 공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單方療法이나 民間療法을 권장했을 것으로 믿어진다.

이때에 나타난 高麗시대의 책으로 鄕藥救急方이나 鄕藥集成方이 대표적인 책이라고 볼 수 있다.

몇년전에 지리산에서 개당귀를 캐먹고 한꺼번에 세사람이 죽은 일다는 말만듣고 아무렇게나 먹어도 되는줄로 잘못알고 먹어서 나타난 사고다.

당귀가 부인병에 좋은것 만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한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다른약과같이 조제해서 먹었을때 이야기다.

쇠뜨기풀도 우리 충청도에서는 소에게도 주지않는 풀이다. 필자도 어렸을때 아버지가 꼴을 베어와서 소에게 먹일때 쇠뜨기풀을 골라내는 것을 보았다.

때가 때이니 말씀설령 옛날에 좋았던 약이라도 지금에 와서도 그약이 좋으라는 보장이 없다. 가급적이면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다.

차제에 TV나 라디오는 시대에 뒤떨어진 민간요법을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방영이나 방송하는 일은 삼가하는 것이 진정 국민보건을 위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健康교실

專門家 처방 따르도록
잘못쓰면 病 惡化시켜

이익을 목적으로 마치 민간요법이 神秘의 藥인양, 만병통치의 藥인양 인기전술로 오도되어서는 안되겠다.

實例로 발톱을 뺀데 치자떫을 붙이면 죽은피가 시퍼렇게 빠져나온다고 믿었으나 實은 치자물이 시퍼렇게 드는것이지 죽은피가 빠져나오는 것은 아니다.

민간요법의 발달과정을 문헌이나 습관으로 미루어 볼때 처음에는 인간의 본능에서 시작되었으리라고 생각된다.

마치 꿩이 다리가 부러지면 풀잎으로 붕대같듯이 동여매는 것처럼 말이다.

다음에는 지식계급에 의하여 약간의 위생적인 방법으로, 더러는 위험성을 덜어주는 방법으로 지도하고 계몽되었으리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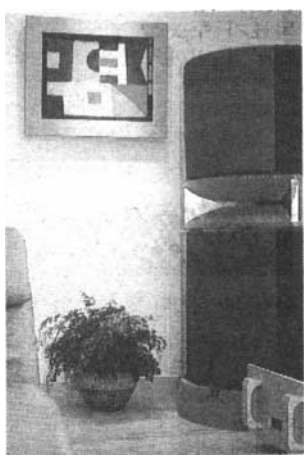
이때에 나타난 高麗시대의 책으로 鄕藥救急方이나 鄕藥集成方이 대표적인 책이라고 볼 수 있다.

몇년전에 지리산에서 개당귀를 캐먹고 한꺼번에 세사람이 죽은 일이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믿겠는가 하겠지만 지금 우리들이 다반사로 쓰고있는 「오디오」라고 하면 어원이야 「소리를 듣는다는 말聽」이겠지만 지금 우리들이 다반사로 쓰고있는 「오디오」란 「라디오」나 「전축」을 의미한다. 그러면 오디오장치를 구성요소별로 분류해서 살펴보자. 우선 소수부분을 처리하는곳이 앰프이다. 이것은 소리의 입력을 조절하는 오디오의 심장부라고도 할수 있으며 사실 이 앰프자체도 더 세분한다면 프리앰프, 파워앰프로 구분할 수가 있다.

趣味생활

오디오의 常識 〈1〉

——李 裕 健 (65年 工大卒)
〈曉新企業 대표 · 韓國오디오愛護家會 회장〉



다시말해서 소리의 입력을 조절하는 오디오의 구라 할수 있는 장치로는 FM튜너, CD플레이어, LP플레이어, 녹음기 및 좀 특수하긴 해도 마이크가 있다. 그 다음으로 오디오 신호를 증폭하는 심장부라고도 할수 있을 앰프가 있는데 사실 이 앰프자체도 더 세분한다면 프리앰프, 파워앰프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이것들을 한데 묶은 인테그레이티드 앰프나 리시버앰프도 있다. 그다음 우리 인간이 오디오를 통해 최종적으로 音을 귀로 들을수 있는 전기에너지를 물리에너지 즉 음파로 발생할 수 있는 기기가 스피커와 헤드폰이다. 오디오 장치중에서도 이 스피커가 가장 중요시 되고 있는 이유는 앞서 말한 각종 장치에서 제아무리 소리를 잘 다듬고 증폭시킨 전기신호로 보내다 하더라도 이 스피커가 잘 받아서 소리로 재생시키지 못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모두 허사로 되고말기 때문이다.

그러면 오디오의 각 부분별 기능을 살펴보자. 우선 FM튜너는 방송국에서 電波매체로 방출되는 음악이나 소리 신호를 안테나를 통해 수신하며 이렇게 수신된 전파를 앰프가 동작할 수 있는 전류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장치이다. 사실 요즈음 전자공학이 발달되고 그에 상응하는 전자제품이 싼값으로 쏟아지고 있는 시대에서는 이방송수신을 통한 음악감상은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다. 바쁜 사회생활 환경속에서는 라디오를 통한 음악감상이 매우 편하고도 깨끗한 음질로 즐길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오디오를 통해 음악을 감상할때는 그것을 들어서 감동도 느끼고 더나아가 행복감을 만끽할수 있어야만 한다. 이런의미에서 별다른 큰 노력없이 음악의 묘미를 즐길수 있는것은 「FM라디오가 제격이 아닌가 생각된다. FM방송을 제대로 들으려면 수신기의 좋고 나쁠도 중요하지만 FM안테나의 선정, 설치가 매우 중요하다. 한편 1980년대 초에 출현한 콤팩트 디스크(CD)는 지금 오디오 소스의 주류를 이루면서 무서운 속도로 확산 발전되고 있는데 이 CD를 듣기 위해서는 CD플레이어가 필요하다. 깨끗하고 명쾌한 음질뿐만 아니라 사용의 편리성으로 인해 지금까지 LP음반을 들어오던 사람에게는 다소의 거부반응도 없는것은 아니지만 여하튼 앞으로는 이 CD가 음악 기록 매체로서 다른 어떤것과도 견줄수 없는 장점을 갖고있다. 사실 FM음악 방송이 더없이 유용하고 편리한 음악 매체이긴 해도 자신이 좋아하는 레퍼터리를 선택적으로 듣기 위해서는 별수없이 CD나 LP를 찾을수 밖에 없다. 다양한 레퍼터리를 훑어보고 듣고 싶은 음악을 선택해서 CD플레이어에 올려놓고 듣기 위해서는 머리로만 생각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행동력이 요구된다. 취미의 영역으로까지 오디오 도락을 즐기는 단계까지 가려면 이와같은 실천력이 필요한것이 어쩔수가 없는 것이다.

스피커가 가장 중요한 部分
道樂으로 즐기려면 적극성 필요
使用 간편한 CD 확산추세

新刊

■언어학 연구사

-金芳漢編(52년 文理大卒·母校명예교수)

국내에서 현대적 言語學연구가 이루어진지 반세기가 지나면서 이분야의 초창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산증인으로 불리우는 編者의 「정년퇴임기념논문집」으로 기획된 책. 크게 3편으로 나누어 1·2편에는미국학계의 음운·통사 이론의 변천에 관해, 3편에는 역사-비교언어학 이외에 언어학사및 개별언어연구사를 다루어 앞으로의 한국언어학연구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金동문을 비롯, 24인의 언어학자가 집필했다.〈서울대출판부刊·746쪽·2만원〉

■장안은 봄

-崔俊浩譯(56년 法大卒·法務士)

현종황제의 총애를 받아 후궁의 최상위를 차지한 후, 황제의 비가 된 양귀비의 운명적인 짧은 생애를 당대의 史實속에서 조명하면서 여성의 사랑에 대한 신비함과 권력자들의 비정한 내면세계를 파헤친 이노우에야스시의 力著. 비교적 사실에 충실하게 기술하면서도 인간에 초점을 맞추어 1천2백여년전 파란만장했던 인간사를 그리고 있다.〈世代刊·298쪽·4천원〉

■글동네 사람들

-鄭奎雄著(64년 文理大卒·문학평론가)

영원한 문학기자로 불리우는 저자가 4반세기동안 함께 숨쉬면서 걸어온 문학·문단·문인가의 뒷얘기와 일선기자·문화부장으로서의 체험담을 모은 산문집. 80년대 초반 「한수산 필화사건」의 연루자로 지목돼 고초를 겪은 일을 비롯, 그간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문단내 사건의 진상과 일화를 저널리스트 특유의 시각으로 담담하게 펼쳐보이고 있다.〈작가정신刊·316쪽·4천2백원〉

■개구리밥 신세를 벗어나려거든

-張斗煥著(65년 文理大卒·前인물계주간)

필명 장일하로 알려져 있는 張동문의 젊은이와 직장인을 위한 Success에세이집. 직장인들의 끊임없는 자기계발의 필요성과 목표에 대한 확신, 도전하고 얻는 성취동기의 유발을 강조하고 있다. 오늘을 사는 젊은이들이 연못에 떠도는 개구리밥(부평초)처럼 떠도는 삶을 탈피, 목표가 뚜렷한 창조적인 삶을 살라고 일깨우는 한편 필자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단상과 사회비평을 수록했다. 〈현대문예사刊·284쪽·3천8백원〉

■가리마탄 여인(上·下)

-鄭昭盛著(69년 文理大卒·단국大교수)

『소설은 역시 인간의 실수의 기록』이라는 작가의 말처럼 잔혹하리만큼 불행한 인간상을 창조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또하나의 여인상을 관조하게끔 하는 장편소설. 할머니와 손녀에게 일어난 동류의 능욕은 가치관이 무너지는 세태에서 사뭇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작가의 아홉번째 소설집이기도한 이책에는 한국여성의 정신적 전형을 조각하겠다는 저자의 의도가 전편을 흐르고 있다.〈조선일보사刊·각권 4천원〉

■최고경영자를 위한 생산성혁신전략

-尹德均著(70년 工大卒·한양大교수)

최근의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우리기업이 비교우위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 필요로 하는 생산성혁신에 관해 서술한 책. 저자의 연구경험과 실무교육을 통해 지득한 내용들을 이론에 그치지 않고 한국내 주요기업의 생산성현황을 다각적으로 분석·예시함으로써 생산성혁신 실무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법경출판사刊·168쪽·5천원〉

公演

■천진암 합창단 정기연주회

—10월4일 예술의전당

국내 유수의 성악가들을 주축으로 종교성과 음악성을 겸비한 화음을 펼치는 천진암합창단의 세번째 공연. 중세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미발표된 교회음악과 국내창작곡을 집중연구 발표하는 합창단으로 잘알려진 이들의 이번 공연에서는 특히 Perosi(伊)의 오라토리오 「영혼의 나그네길」이 눈길을 끈다. 최병철(60년 音大卒)동문의 「성모송」도 초연. 메조소프라노 金信子(58년 音大卒)동문의 완숙한 화성이 국내 초연곡들의 맛을 더해준다. 피아노 협연은 李允貞(88년 音大卒)동문.

■서울챔버앙상블창단연주회

—10월9일 호암아트홀

「실내악을 통한 차원높은 예술적 정신에의 도달과 클래식 인구의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김준차(63년 音大·음악감독겸 피아노)동문에 의해 창단된 서울챔버앙상블은 국내 실내악 발전에 한획을 그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金동문은 10여년간 미국을 무대로 한국실내악을 소개해 왔다. 音大교수 교향악단 단원등으로 구성된 이팀은 국내에서 잘 연주되지 않았던 레퍼터리 소개는 물론 매연주회마다 참신하고 역량있는 연주자들을 선보일 계획이다.

■宋在光 바이올린독주회

—10월6일 호암아트홀

모교音大 재학중(82년) 독일 퀼른음대로 유학, 독일을 무대로 꾸준한 연주활동을 해온 宋동문은 이미 모교재학중 한국 쥬네스스트링앙상블, 세계청소년교향악단등의 멤버로 활동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현재 인천시향 악장으로 있으면서 이화여대·중앙대등에 출강중이다. 5번째 갖는 이번 독주회에서는 모짜르트·슈벨트·브람스가 연주된다. 피아노 협연은 음인아(89년 音大卒)동문.

◇송재광(바이올린)

■가을사랑 콘서트

—10월17일 예술의전당

가을을 맞아 현재 각분야에서 정상의 기량을 펼치고 있는 音大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펼치는 가곡과 아리아의 한마당. 朴世源(72卒·테너) 金成吉(65卒·바리톤) 朴美惠(83卒·소프라노) 金秉俊(71·바이올린) 權景淳(73卒·피아노) 朴丙勳(74卒·첼로) 동문들이 모처럼 한무대에서 협연하는 이번 무대는 얼마전 동문교향악단이 선사한 감동과는 또다른 형태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협연엔 모테트합창단, 지휘 朴治龍(86년卒)동문. 공연문의는 音大동창회(701-1441)

◇박세원(테너)

◇박미혜(소프라노)

■월드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0월12일 호암아트홀

올 2월 30여명의 단원으로 창단된 월드심포니는 朴順德(75년 音大卒·음악감독겸 상임지휘자) 동문이 이끌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여성지휘자를 보기드문 음악계에서 이들이 갖는 의미는 사뭇 진지하다. 이번으로 3번째 연주회를 개최할만큼 정열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번 공연에서는 모짜르트의 오페라 「여자는 다그래」서곡 K.588을 비롯, 쿠세비스키, 베토벤이 연주된다. 콘트라바스 협연은 陳江海(75년 音大卒) 동문.

■安東昊 바이올린독주회

—10월12일 세종소강당

안동호(84년卒)동문은 모교音大를 거쳐 비인국립음대를 졸업하는동안 솔로와 실내악연주분야에서 꾸준한 활동을 해 왔다. 현재 서울바로크합주단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예원·대신대에 출강중. 귀국전엔 유럽 각지를 무대로 연주활동을 하면서 Schubert Trio에게 실내악 사사를 받아 Diplom을 받았다. 이번 공연에서는 모짜르트·브람스·프로코피에프가 연주된다.

■바리톤 趙炳旭 독창회

—10월10일 세종소강당

조병욱(81년 音大卒)동문은 모교를 거쳐 서독에서 정통 가곡수업을 쌓은 성악가이다. 현재 인천음악문화원 부원장으로 있으면서 각종 가곡연구회에서도 꾸준한 활동을 하고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베토벤·스트라우스·베르디 등이 연주된다. 피아노는 김유철(84년 音大卒)동문이 맡았다.

展示

■李承玲(71년 美大卒)

먹이가 꿀벌에게 들어가면 꿀로 토해진다. 거미에게 들어가면 거미줄로 토해진다. 그림이 내게 들어와 토해진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들만이 공감할 수 있고 이어져 내려온 「우리의 영혼」』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것은 우리의 체취, 희노애락-삶, 그것이다. 그것은 바로 한국인속의 나자신인 것이다. —作家의 말中에서—

'89·Oil on Canvas·61×73·'89

母校소식

新入生 4백50명 增員

藝體能系 실기비중 낮춰

美大 35%、師大체육과 26%로

내년 모집요강

모교는 지난 9월26일 내년 입시에서 미술대학 실기성적 반영비율을 예년의 40%에서 35%로, 사범대 체육교육과는 30%에서 26%로 각각 낮추고, 모집정원을 작년보다 4백50명을려 4천8백35명으로하는 내용의 92학년도 신입생모집요강을 확정, 교육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모교는 그러나 올해 입시부정으로 몸의를 빚었던 음대의 실기반영비율은 현재의 50%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날 학장회의에서 확정된 모집요강에 따르면 미술대의 경우 총점 9백71점중 실기만점은 3백40점으로, 사범대 체육교육과는 총점 1천점중 2백60점으로 하며, 예체능계열은 모집인원 전원을 제1지망자중에서 선발하도록 했다. 반면 음대의 경우 전공적성상 실기가 중요하고 오랜기간 수험준비를 해온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실기반영비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공동관리제로 평가하던 것을 모교 자체에서 실기시험을 자율관리키로 했다. 정원중원내역은 공대가 3백80명, 자연대가 60명, 사범대가 10명씩 각각 늘어났다.

전형방법은 학과 전공 등 모집단위별로 지원을 받아 모집인원의 80%는 제1지망자 가운데 성적순으로 뽑고 나머지 20%는 제2지망자중에서 선발한다. 그러나 가정대와 수의대는 1지망에서 90%를 뽑기로 했다.

모교는 또 91학년도부터 상황조정된 사범대학의 면접고사성적 반영비율 및 적성 인성검사는 각각 8%씩 그대로 유지하는등 기타 전형방법은 예년과 변함없다고 밝혔다.

한편 모교는 내년부터 농과대학을 농업생명과학대학으로, 임학과를 산림자원학과로, 축산학과는 동물자원과학과로, 임산가공학과는 임산공학과로, 또 농산과는 조선해양공학과로 각각 이름을 바꾸어 신입생을 모집하기로 했다.

名譽敎授室 설치 운영

醫大、연구지원위해 本館 2층에

의과대학에서는 정년퇴직한 명예교수들의 계속적인 연구를 지원해 주기 위해 의대본관 2층 205호실에 명예교수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전화는 745-6701 교환 605.

經濟研究所 창립 30주년

「한국의 경제발전…」 주제 심포지엄

모교 경제연구소(소장 경제학과 安秉直 교수)는 창립 30주년을 기념하여 9월27 10시 교수회관에서 「한국의 경제발전」 평가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趙淳 전부총리가 「한국의 경제발전전략」, 국제경제학과 林鍾哲 교수가 「한국의 경제발전과 산업구조」, 表鶴吉 교수가 「세계자본주의체제와 한국경제」, 경제학과 安秉直 교수가 「한국경제발전의 역사적 조건」, 경북대 이정우 교수가 「한국의 부, 자본이득과 소득불평등」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音大교수 "레슨 않겠다"

음악계 自淨차원서 결정

모교음대교수들은 지난 9월10일 회의를 갖고 예술계 중고생들에 대한 레슨을 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교수 41명중 35명이 참석, 격론끝에 「예체능계입시부정엔 교수들의 중고생 레슨책임이 크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30개5의 거수표결로 레슨중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음대는 11일 서울예고, 선화예고, 예원중학교등 소속교수들이 출강중인 예술계 5개학교에 결의사항을 담은 공문을 보내 축강중지를 통보하고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스튜디오에서의 레슨도 하지 않기로 했다.

교수들은 10일 상오10시 金鍾云 총장과의 간담회를 가진뒤 하오4시까지 계속된 교수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金容振 음대학장은 「국가적으로 음악의 조기교육제도가 완비돼 대학교수의 중고생레슨이 부조리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될때까지 이 결의를 지켜나갈 것」이라며 「이번 결의는 음대입시부정사건에 대한 음악계의 자정운동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악과의 일부교수들이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들어 반대의사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기악과장 徐桂淑교수는 「기악은 어렸을 때부터 올바른 기초교육이 필요한것이 사실이지만 음악계의 풍토를 바로잡는 측면에서 이번 결정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모교음대의 결정은 다른 음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大학원入試 11월30일

92학년도 대학원 입학고사가 오는 11월30일(土) 실시된다. 입학지원서 교부는 11월14일부터 20일까지이며 접수는 16일부터 20일까지이다. 이 고사의 합격자는 12월13일에 발표하게 된다.

發展基金 단대별 偏重현상

人文·社會大는 전체의 2%불과

지난 86년부터 시작돼 현재 진행중인 발전기금 모금이, 출연된 발전기금은 출연자의 희망에 따라 그 용도가 결정된다는 원칙에 의해 몇몇 단대에만 편중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86년 개교 4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발전기금 모금사업은 지난해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의 출범과 더불어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기금조성 창구를 마련하게 됐다.

이 발전기금은 동문·학부모·유지·기업체·기관등을 대상으로 해 모금이 되고 있으며 ▲학술연구 ▲국제학술교류▲도서구입 ▲연구기자재구입 ▲장학금지원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그런데 발전기금의 출연자가 발전체의 20%를 차지한 반면 인문대학, 사회대학의 경우는 전체의 2%정도에 불과해 대조를 보였다.

한편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에 현재까지 출연된 기금액은 농산과 부지원대상별 불균등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31일까지 접수된 출연금 총액 1백53억원중 지원대상이 대학본부인 경우 1백20억원을 제외한 33억원의 출연금 중, 공과대학(4억3천만원)과 경영대학(2억원)과 같은 인기 지원대상의 경우는 전체의 20%를 차지한 반면 인문대학, 사회대학의 경우는 전체의 2%정도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사회학과 사회학연구실험팀(지도교수 洪承)이 지난 1학기 동안 모교생 9백37명을 대상으로한 의식조사결과 나타난 것으로 전체응답자의 97%가 우리사회가 크게 불평등하다고 응답했다.

"사회 不平等하다" 97%

모교생 937명 의식조사

모교생들은 우리사회가부의 분배측면에서 크게 불평등하며 사회성원간의갈등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본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또 계층간의 갈등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85%)고 보고 이같은 불평등 갈등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점진적개선(31%)보다 사회전반에 걸친 근본적개혁(60%)이 단행되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전기금의 사업수행의 기본방향을 보면 대학(원) 단위 사업의 경우 ▲사업비 배정액은 전년도 대학발전기금 사업계획과 배정가능금액 범위내의 금액으로 한다. ▲학과별·용도별 배정은 원칙적으로 출연자의 출연목적과 부합돼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전용이 가능하다. ▲각 사업단위는 배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재단에 해당년도 사업비를 청구하고 재단에서 이를 각 사업단위별로 지급한다는 원칙이 있다. 그러나 일부 에서는 이 원칙의 적용자체가 애매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기도 한다.

한편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의 사업수행의 기본방향을 보면 대학(원) 단위 사업의 경우 ▲사업비 배정액은 전년도 대학발전기금 사업계획과 배정가능금액 범위내의 금액으로 한다. ▲학과별·용도별 배정은 원칙적으로 출연자의 출연목적과 부합돼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전용이 가능하다. ▲각 사업단위는 배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재단에 해당년도 사업비를 청구하고 재단에서 이를 각 사업단위별로 지급한다는 원칙이 있다. 그러나 일부 에서는 이 원칙의 적용자체가 애매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기도 한다.

한편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에 현재까지 출연된 기금액은 농산과 부동산을 합쳐 총 1백98억 규모다. 여기에 한국화약그룹 발전기금 2백50억원(80억은 90년도 지급)을 합친다면 93년까지는 3백68억원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즉, 발전기금사업은 날로 확장되고 있으며 출연자층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발전기금사업의 확장과 함께 그 용도에 대한 신중한 검토는 이후 계속 강조돼야 할 것이다.

또한 발전기금의 원래 설립취지 자체가 「국고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발전기금의 올바른 활용에 대한 논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